朝鮮日報
夕刊 十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少壯人材를拔擢 伊內閣改組斷行

무氏兼攝八相中三相은辭退

스빗치 外務次官罷免

무솔리니伊首相

【羅馬九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은 聯盟臨時總會를 앞두고 內閣의 一部改造를 斷行하고 少壯人材를 拔擢하야 國內陣營의 强化를圖하기로 決定하야 勅裁를 仰한後 九日夜 內閣改造의 勅令을 公布하엿다 改造의 結果 뭇솔리니首相은 一九三五年一月以來 兼攝하고잇든 八相中 外相、組合相及植民相의 兼攝을 退하고 外相에차노伯을 起用하는外에 各省次官을 各各長官으로 起用하엿다 勅令內容은 如左하다

任外相 新聞宣傳相 차노
任新聞宣傳相 新聞宣傳省次官 알피에리
任組合相 組合省次官 란치니
任植民相 植民省次官 렛소나
免本職 外務次官 스빗치
任外務次官 알소우駐剳大使 빗차니니

의 外交交前의 非常時에 當하야 뭇솔리니首相은 專任外相으로 新銳차노伯을起用하야 外交陣營의 强化를 圖한것이라고解釋되다 未遂直下의 遠征에 辛酸을 맛보차노外相은 東阿遠征으로 갖까지 에디오피아植民地維保를 主張할것으로 解釋되므로 聯盟總會前後를通하야 聯盟을흔려안치고 이든外相間에 虛實의 外交戰을展開할것으로 보힌다

獨伊兩國同盟說

兩國當局모다否定

【羅馬九日發同盟】獨伊間의 交涉說에 關하야 밧시스트當局이나 各新聞이 모다 이를 否定하고잇는데 政府機關紙 「포폴로·디·이탈리아」紙는 社說를 揭載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伊太利政府는 歐洲의 安全確保를 期할 見地에서 各國政府와 好友關係維持를 希望하는者이오 特定한 國家와 結托하야 自己를 拘束하는것을 즐겨하지안는다

그리고 有力紙 一部는 社說에서 萬若 聯盟側이 伊太利를 脫退할수밧게업는 立場에 모라너흐면 伊太利는 獨逸에 加擔할는지도 모른다고 示唆하야 注意를 끌을고잇다

【伯林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聯盟이 制裁를 撤廢하지안흐면 獨逸과 同盟關係를 締結할 意向이라는 巴里에서온 報道에 對하야 獨逸外務省은 그것은 今始初聞이다 고 놀라며 伊太利와 如斯한 問題의 外交交涉을 行한 事實은업다고 表明하엿다

制裁案不撤回時엔 獨逸과同盟締結

◇駐佛伊大使의威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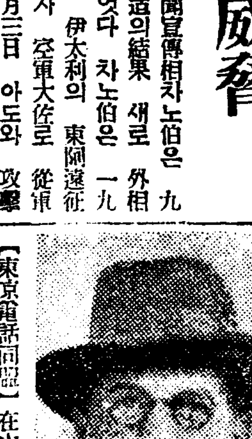
【巴里九日發同盟】駐佛伊太利大使체루티氏는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八日 外務省에 델보-外相을 訪問하고 에디오피아問題에對한 佛國新政府의 意向을 打診하엿다 伊太利政府는 來 聯盟理事會에서 佛國政府가 伊太利의 名譽를 毁損함과如한 事態를 誘致할 態度를 取하지안흘것을 期待하고잇다는 旨를 述하고 萬若制裁가 撤回되지안흐면 伊太利는 聯盟을脫退하고 獨逸과의 同盟締結交涉을 開始할것을 明示하고 佛國 政府의 愼重한 考慮를 促하엿다고 傳聞된다 消息通에서는 萬若佛國이 伊太利의 要請을 拒否한다면 伊太利가 獨、墺、匈、波를 糾合하야 佛國과 그傘下의 諸國과를 遮斷하는 反佛블럭을 形成할는지도 모른다고 豫想하고 佛伊間의 推移에 深甚한 注意를 하고잇다

北佛炭坑妥協成立

【巴里九日發同盟】北佛의 炭坑罷業은 九日午前 炭坑主側과爭議代表間에 妥協이 成立되엇다 十一日부터 復業될모양이다

伊新外相

卅三歲의新進



【羅馬九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의 女婿新聞宣傳相차노伯은 九日 內閣改造의結果 새로 外相에 任命되엇다 차노伯은 一九三五年十月 伊太利의 東阿遠征이 始作되자 空軍大佐로 從軍하야 十一月三日 아도와 攻擊에 當해서는 所謂 挺身空軍隊를 引率하고 果敢한 爆擊을 敢行하엿다 遠征劈頭에 赫赫한 武勳을 나타낸 新外相은 年齡겨우 三十三 伊太利政治史上 空前의 少壯外相이다 伊太利政府

作戰計畫整頓!

第一集團軍出動

九日陳濟棠氏가發令

【廣東九日發同盟】第一集團軍總司令陳濟棠氏는 九日正午 全空軍에 對하야 出動準備令을 내렷다 이보담 앞서 廣東空軍司令은 午前八時 司令部에 幹部를 召集하고 協議한結果 作戰計畫을 如左히 決定하엿다

一、韶關에 第一、第三의 兩隊를 配置하고 湖南進入의 張達軍進擊에 協力하는 同時에 江西南部로부터 廣東第一軍의 掩護에 當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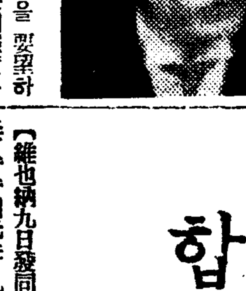
二、汕頭에 第五、第六 兩隊를 配置하고 第三軍과함께 德州附近의 警戒에 當할것

三、龍化에잇는 第四隊는 全혀 廣東市의 防衛에 當할것

列國利益을爲해 經濟的援助必要

英國利益만爲하는것은아니다

리氏、外相會見內容



【東京電話同盟】在中九個月視察의 結果를 가지고 八日入京한 英政府經濟使節리드로스氏는 同日 곳 磯谷軍務局長을 訪問하고 爲先軍部의 意向을 打診하엿는대 九日午後三時 크라이브駐日大使와함께 外相官邸에 有田外相을 訪問、堀內次官을 加하야約一時間에 亘하야 中國問題를 中心으로한 日英關係의 調整에 關하야 重大會見을 遂하고 午後五時會見을 終了하엿다 即 右會見에서 英國側의 見解는 依然 經濟的利害의 打算上에서 中國에서의 日英提携를 圖하려는데對하야 日本側은 日中關係는 日本國民的生存에 重大한關係가 잇고 政治的重要性이 잇다는것을 强調하야 英國側의反省을 要望하엿는대 英國側도 從來의態度를 고처同日의會見에서 東亞의 日本地位를 漸次確認하려하는 態度에 나온것은 注目할만한 現象이다

그리고 有田 리드로스兩氏間의 一問一答은 如左하다

▲一般問題

有田外相 中國視察을 終了하고 歸國前에 일부러 日本을 訪問하고 日本朝野와 會談하려 는것은 日英兩國의 親善을圖하는데 實로 時宜에適하다信한다

리드로스氏 昨年九月渡中前에訪日하엿슬때에 나의使命에 關하야 日本朝野로부터 여러가지 誤解를바든것은 遺憾이다 나의中國에서의 活動은 單純히 英國利益만을 圖하려는것이 아니고 中國의經濟回復에 依하야 一般民衆의 購買力이 增進되면 英國을 爲하야 日米其他中國關係國에도 至大한經濟的利益이 되리라고 밋고活動하엿다

有田外相 나는貴特使가 訪日當時에 海外에 駐在中이엿스므로 그런事情을 잘아지는못하나 貴使節의 渡中目的이 다른데 잇다고 誤解되야여러가지批評을바든것이라고생각한다

▲對中經濟援助問題

리드로스氏 中國의 經濟力을 回復하야 大衆購買力을 增進하는것은 列國의 中國貿易回復上 重大問題이다 따라서 列國은 中國에 對하야 經濟援助를 與하는것이 必要하다고 밋는다 鐵道建設에 關하야는 經濟的으로도 採算이 可能한者가 相當히 잇고 國民政府에서도 現在考慮中인것도잇서 此에對하야 各國이援助를 하는것이 조흘줄밋는다

有田外相 中國의 鐵道建設은 相當히 盛行한時代가 잇섯스나 中國의 經濟援助는 中國의政情安定과 密接한關係가잇슴으로 愼重히考慮하지안흐면안된다

(사진은 리스로스氏와 有田外相)

話題雜記

團體協約權

今回 佛國의 大勞働爭議는 新內閣의 斡旋으로 解決의 曙光이 보이게 되엇다고 報道되고잇는데 그解決案內容中에는 團體協約權의 條約이 一條件으로 插入되엇다。이제 團體協約權의 意義를 簡單히 記述키로한다。

◇團體協約이라는것은 資本家가 雇入한 勞働者의 團體를 公認하고 雇傭條件을 協定하는 關係를 確定하는것으로서 勞働組合을 雇傭契約締結의 相對로 認定하는것을 前提로 하는것이다。即 團體協約에 依하면 法律的形式이 個個의 勞働者와 資本家間의 契約이라도 그것은 團體協約의 基準에 依하야 締結된것이되고 또 將來 그工場에 雇傭되는 勞働者에게도 그效果를 미치는것이다。從來하면 그것은 어데까지 個人主義的 契約自由의 原則을 墨守하고 團體의 勢力으로 資本家를 對抗하는것을 社會的으로나 法律的으로나 無認하려는것이다。團體協約의 確立은 勞働者의 團體勢力이 뉘라 勞働條件을 保全하고 産業의 平和를 維持하는데 多大한效果가 잇는것이다。

◇通常 團體交涉權이라함은 이 團體協約權으로 法認되고 또 勞働組合法에 依하야 認定된 勞働者의 團結權을 이룸이나 卽團體協約은 勞働者의 團體交涉權은 勞働組合法과 協約法에 依하야 비로소 그活動을 할수잇게되는 것이다。이 勞働組合이 오랜 歷史를 가진 英、獨、伊等諸國에서는 勞働組合法이 認定되여잇스나 日本에서는 勞働組合法이 아직制定되지안햇고따라서 團體交涉權도 法認되지안햇다。

聯盟總會를機會로 伊國聯盟脫退?

伊、墺、匈間『新三國同盟』도締結

우브르紙의報道

【巴里八日發同盟】뭇솔리니伊首相은 오는聯盟總會를機로 聯盟을脫退하고 『新三國同盟』締結을 劃策하고잇다는 風說이 最近頻頻히 傳하고잇는 此際에 急進社會黨系 우-브르紙는 今日如左히 報道하야 注意를 끌을고잇다

뭇솔리니伊首相과 墺太利首相 슈-슈닉博士의 最近會談의結果 二十六日또는 三十日 합스부륵王家의 復辟을 聲明하기로 거이意見一致를 보왓다 이兩日을 選한것은 二十六日에는 聯盟理事會 三十日에는 總會가 열이어 반드시 伊太利에不滿한決定을할것이 豫想되므로 伊太利는 이미 聯盟脫退를決意하고 伊太利脫退와 합스부륵王家復辟聲明과 同時에實行하야 世界에 巨彈을 投하려는것이다 그리고 이와 同時에伊太利는 匈牙利를誘引하야 트리아는條約의 軍事條項廢棄를聲明시켜서 新三國同盟締結의 第一步를 내여드되려는 工作을하고잇다

治法一部撤廢 日滿條約調印

十日午後新京에서

【新京十日發同盟】滿洲國內에잇서서의 日本帝國의 治外法權一部撤廢의 基本協定과 附屬協定은 日滿兩國政府最高機關의 諮詢을 了하야 十日午後三時(東京時間午後四時) 新京外交部廳舍大廳室에서 兩國代表者間에 署名調印을 了하엿다 이날 日本政府代表特命全權大使植田謙吉大將은 板垣參謀長 今村副參謀長 守屋參事官、大鷹書記官等의 隨員을 帶同하고 午後二時五十分 外交部新廳舍에 到着하야 張景惠國務總理大臣 張燕卿外交部大臣以下 滿洲國代表等의 出迎을바드면서 調印式場인 謁下大會室에 들어갓다 式場에는 關東軍으로부터 板垣參謀長 今村副參謀長 竹下第三課長 花谷參謀 渡邊少佐 大使館으로부터 守屋參事官 大鷹書記官 三浦書記官 林出書記官、大島海軍武官 河田補佐官 關東局으로부터 東條警務部長 三浦外事部長 杉村、御村、青木、山口、小坂各課長 滿鐵總裁 河本、郡山各理事 滿洲國側으로부터 大達總務長官、神吉次長 大橋外交部次長 衛井宣化司長 孫財政部大臣 呂民政部大臣 丁實業部大臣 星野財政部 高橋實業部 滿水民政部 各總務司長等이 出席하엿다 植田全權은 式場의 大테불의 中央에 滿洲國代表 張燕卿外交部大臣과 對坐하야 着席하엿다 먼저 山本大使館書記官及 外交部楠谷文書科長은 各各 條約正本及交換公文을 植田全權과張外交部大臣에게 呈出하엿다 大使及 外交部大臣은 條約正本을 點檢한後 午後三時十六分 條約正本及 附屬書에 歷史的署名調印을 了하엿다 마친後 一同은 샴펭杯를들어 日滿兩國關係의 益益緊密强化를 祝福하고 記念撮影을하고 盛儀를 終了하엿다

各道產業敎育 兩部新設方針

總督府行政機構改革

總督府에서는 中央의 庶政刷新及 行政機構改革에伴하야 總督府로서 이에追隨할것이 不少하리라하야 方今 總督府及 地方廳의 行政機構改革에對한 調査準備를 하고잇는데 一部는 明年부터 實施될것도잇서 明年度豫算編成期인 七八月頃에는 改革案의 骨子가 大體 具體化할것이라한다 그런데 地方廳의組織改革案中 重要한것은 各道에産業部의 獨立과 學務部의新設計畫인데 이것을 一時에 各道에實施하려면 相當한 豫算이 必要하게 되므로 漸進的으로 新設케하되 産業部의 新設은 旣設京畿、全南、慶南北 四道外에 平南、咸南、平北、咸北의 四道中에서 三道에新設될터이며 學務部는 京畿、平南、慶南北、全南의五道에 爲先新設하야 今後數年內에 各道全部에 産業部와 學務部를 新設한다 따라서 參與官이라는官職은 廢止되고 道事務官으로서 産業部長의任命을 볼것이며 事務管掌은産業部는現在內務部所屬인 産業課 山林課 農務課 水産課等을 學務部는各道에新設될 社會課와 現存學務課를 包含케하야 産業行政과敎育行政의確立을 期할터이라한다

『獨逸과提携하야 합家復辟斷行!』

墺首相의大獅子吼

【維也納九日發同盟】墺太利首相 슈-슈닉氏는 九日 維也納議事堂前의 廣場에서 十萬의 愛國戰線隊員을 압두고 獨墺兩國關係의 將來와 합스부륵王家의復辟問題에 關하야 獅子吼하야 大喝采를 博하엿다 首相이 公開席上에서 演說한것은 前週 못솔리니伊首相과 會見한以來 最初이므로 墺太利政府將來의 政策을 示唆한것으로 注目된다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羅馬議定書는 依然 墺太利政府外交政策의 基調이다 墺太利政府는 故돌프스首相의 遺志에基하야 獨逸民族共同社會의 建設을 期하고 獨墺兩國關係의正常化를 圖할것이다 墺太利政府는 自國의 周圍에 障壁을 싸흘意思는 업다 國民은 끗까지 自國의 自由와 獨立을 尊重하도록 要求한다 各國政府가 國際條約에 依하야 決定된 國境線을 相互尊重할것이야말로 現下의 緊急事이나 復辟問題에 關해서는 諸言이 亂飛하고잇는데 墺太利政府는 끗까지 復辟斷行에 突進할것이다

日滿條約全文

【新京十日發同盟】滿洲國에잇서서의 日本國臣民의 居住及 滿洲國의 課稅等에 關한 日本國滿洲國間條約

日本帝國政府는 昭和七年九月十五日 調印된 日本國滿洲國間議定書의 趣旨에 依하야 滿洲國의 健全한 發達을 促進하고 또 日滿兩國間에 現存한 緊密不可分關係를 永遠히 鞏固케하기爲하야 現在 日本國이 滿洲國에잇서서 가지고잇는 治外法權을 漸進的으로 撤廢하고 또 南滿洲鐵道附屬地行政權을 調整乃至 移讓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滿洲帝國政府는 右日本國政府의 決定을 多타고하는同時에 이에 對應하야 日滿兩國臣民의 滿洲國領域內의 融合發展을 催保增進하는것이 必要함을 認定하고

兩國政府는 日本國이 滿洲國에 잇서서 가진 治外法權及 南滿洲鐵道附屬地行政權에 關하야 먼저 日本國臣民의 居住及 各種權利利益의 享有와 滿洲國의 課稅 産業等에關한 法令의 適用에關하야 如左히協定하엿다

第一條

日本國臣民은 滿洲國 領域內에서 自由로 居住往來하고 農業商工業 其他公私各種의 業務及職務에 從事할수잇고 또土地에關한 一切의權利를享有하기로함

日本國臣民은 滿洲國의 領域內에서 一切의權利利益享有에 關하야 滿洲國臣民에 比하야 不利한待遇를밧는일이업게함

第二條

日本國臣民은 滿洲國領域內에서 本條約附屬協定所定에 따라同國의 課稅 産業等에 關한 行政法令에 服從하기로함

南滿洲鐵道附屬地에 잇서서는日本國政府는 前項의 滿洲國法令이 本條約附屬協定 所定에 따라 附屬地的으로 施行될것을 承認함

本條의 適用에 關하야 日本國臣民은 如何한 境遇에도 滿洲國臣民에 比하야 不利益한待遇를 밧는일이 업게함

第三條

前二條의 規定은 此를 法人에 適用할수잇는限 日本國法人에適用하기로함

第四條

本條約의 規定은 日滿兩國間의 特別約定에基한特定日本國臣民又는 法人의 權利、特權、特典及免除에 影響을及하지안키로함

第五條

本條約은 昭和十一年七月一日即康德三年七月一日부터 實施함

第六條

本條約의 正文은 日本文漢文으로하야 日本文本文과 漢文本文間에 解釋을 달리할時에는 日本文에依함

右證據로 下名은 本國政府로부터 正當한 委任을 바더 本條約에 署名調印함

昭和十一年六月十日 康德三年六月十日 新京에서 本書二通을 作成함

滿洲帝國駐剳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 植田謙吉(印)

滿洲帝國外交部大臣 張燕卿(印)

그리고 附屬協定은 八條로되엇는데 條約과 同時에 實施하기로되엿다

聯盟理事會 廿六日開會決定

【쥬네브九日發同盟】聯盟理事會議長어든外相은 來二十六日 特別理事會를 招集하기로 決定하엿다

宇垣總督就任滿五個年記念

來十七日은 宇垣總督이 昭和六年六月十七日 親任式을 擧하고 朝鮮總督에 就任한지 滿五個年에 當함으로 總督은 當日午後六時半부터 倭城臺官邸에 各局課長을 招待하고 自祝의 宴을베풀기로되엇다

人事·集會

▲長澤千代造氏(前同盟通信社京城支局長) 本社로轉任人事次來社

▲吉岡鞏之輔氏(同盟通信社京城支局長)新任人事次來社

▲宋鍾道氏(總督府外事課勤務)赴任人事次來社

八面鋒

◇滿洲잇는一讀者로부터 이글을올림픽에出征한 孫、南兩君에게傳해달나는投書——

◇(一)平素 健康에注意하라(二)他選手를蔑視하지도말고 慨내지도말라(三)虛榮心과自慢心을갓지말라。

◇그리고 (四)空前의記錄을지어 二十世紀마라손神이되고 二千萬의 자랑이되라——고。

◇이것은 決코 一讀者의소리가 아니다、온조선사람의希望이오 祝願이다。

◇健康으로이기자 힘으로이기자 意氣로 이기자、그리하야 남과함께 억개를겨누고살자。

◇이러케하고 이러케하는데서 새朝鮮의싹이트고 새朝鮮의꼬치 필것을 이저서는안된다。

祝 時의記念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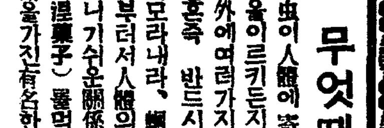
京城電氣株式會社

무엇때문에蛔虫이무서운가

蛔虫이人體에寄生되면 重要한滋養을吸收하야成長되는故로腹痛을이르키든지熱이나든지小兒는밤에울고、몸이瘦瘠하든지、그外에여러가지병을이르키며乃終에는 生命을危險케하는일도 만흐옵 반드시『산토닌과자』(珊篤尼湼菓子)를먹고蛔虫을모라내라。蛔虫의卵은 每日잡수시는 野菜漬物、其他食物에부터서人體의內臟에드러가며害를끼치며、特히小兒는蛔虫에걸니기쉬운關係로日本서는日曜日마다『산토닌과자』를먹습니다。『산토닌과자』는數十年來의經驗과信用을가진有名한虫下藥菓子이오니安心하고愛用하시라

大阪天王寺ノ虫下シ
珊篤尼湼菓子 サントニネカシ 산토니넬과자
(岩崎大海堂セメン菓子)
類似品잇으니 卄票에 注意하시압

개량담배대



製造發賣元 京城府鍾路三丁目六九 德昌工業社
定價表(目錄)送呈합니다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利益만흔本業副業으로 男女小兒老人遠近에서 自宅에서 할수잇는職業 年中無休 說明書及見本申込代無進呈 急募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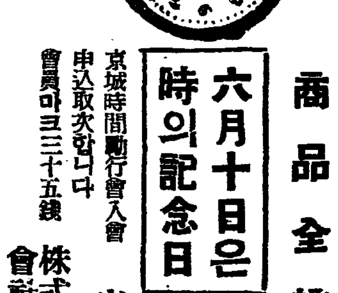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平壤、群山、釜山、木浦、大邱) (營業案內贈呈)

雜誌大王 四海公論絕版
六月號도 數日前에 벌서 絕版되여사오니 未安하오나 못보내신분께은 七月號로代하겟사오니 容恕하시옵소서 또 婦人公論六月號도 十五日以內에 絕版될것이오니 速히 命하시옵
株式會社 四海公論社 京城府竹添町一丁目二十番地

恩給 自轉車用蓄電池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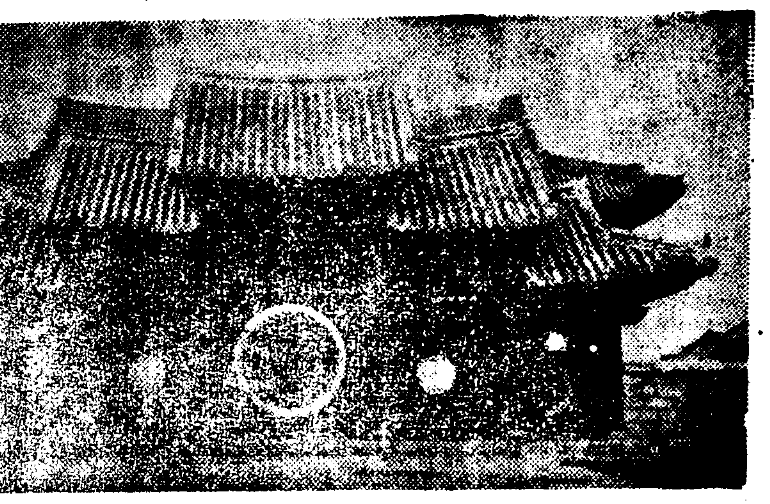
東亞自動車講習所
設備內容共東洋第一! 入學隨意 參觀歡迎
生徒募集 就職無料確實紹介 規則申込次第送呈
免許證獲得하기까지絕對責任敎授
所長 元京畿道運輸者試驗主任警部 良見 溝 經營
京城府若草町大通柚本フォード販賣店サービス工場內 電話本局(2)五一二五·三三番

標準時計 設置十八週年記念割引大賣出
六月八日보터六月十二日까지
時計、貴金屬 蓄音機其他 商品全般 壹割引以上 콜럼비아製品及特價品을除外
賣出期間中 修理半額奉仕



六月十日은 時의記念日
京城時間勵行會入會申込取次합니다 會費마크三十五錢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京城出張所
電話本(2)〇四七一番·〇四七二番
(粗品進呈)

今曉、普天敎本部襲擊
總檢索、文簿押收
全北警察部四十警官隊出動
今日中五百戶搜索



【井邑에서本社全北特派員白安基特電】 한때는 몇만의교도를 가지고 놀음에사는 몽매한사람들을속여 수십만원의 금품을 모아 정읍군입암면접지리(井邑郡笠岩面接芝里)에다 크다란 궁궐가튼 포교소 (布敎所)를 세우고 신자획득에 여념이없는 사교 (邪敎) 보천교 (普天敎) 등을 최근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탄압하기로되여 전북경찰부에서는 구일극비밀리에 대화전 고등과장 (大和田高等課長) 이 이십명의 경관대를 인솔하고 정주읍산보려관에서 일박한후 이 십일 오전네시경에 정읍경찰서원 이십여명의 응원을 어더가지고 열세반에 나누어화물자동차 두대와 승합자동차 두대에 갈러타고 동 다섯시 십삼분경에 보천교 소재지인 전긔접지리에가서 동교 간부는물론 일반신도의 집까지 림검하기로하고 본군안에만 오백호에 달하는 신도전부를 오늘중에는 전부 필할계획이며 금후로는 집회는물론 신도사이의 헌금 (獻金) 도 일체 엄금하리라고한다 그리고 이번 림검에잇서서 보천교에관한 중요서류는 전부 압수되엿다 이결과 어떠한 수확이잇슬런지 대단히 주목되는바이며 사교탄압에 동원한 경관대는 정읍서에 총본부를두고 전긔 대화전과장이 총지휘하이되여 공용자동차 두대까지 배치하고지금은틈민불후의활동을 계속하고 잇는중이다◇사진은 정읍 보천교본부의 평장한삼광문(三光門)(以上號外再錄)

幹部二十名召集
文書를嚴密調査
가즌口實로모앗든獻金에疑惑
不遠自滅될邪敎運命

【井邑特電】 교주 차경석 (車京錫)을일흔 사교 보천교본부에는 십삼반에난호인 경찰관이 각신도의 가택을일일히 림검하고한편으로는 보천교사무실에서 만흔서류를 압수하여가지고 이십여명의 간부를 불러노코 일일히 엄밀한조사를 하고잇스며외인의 출입은 일체엄금하고잇다 이번당국의 보천교에대한 탄압은 철저적으로 할터이라하며종래교주에대한 헌금으로서 각신도에게서돈을모아드리라든 습관을교주가죽은후 금일에 이르도록여러가지구실로 각도에서 돈을모아드린 형적이 보이어 이번긔회에일체 엄금할 모양이다 근년점점 쇠미하여가는상태로보아도머지안흔 장래에 보천교는자멸에빠질 형세에잇든터이라 이번탄압의 결과는 더욱자멸의길을 재촉케될터이다

普天敎類는 모다掃蕩方針
田中警務局長談

일즉부터 전하여오든 조선내의 류사종교(類似宗敎)에대한 당국의 탄압은 드듸여 십일오전오시를긔하야 전북경찰부에서 다수경관이 정읍(井邑)에잇는 보천교(普天敎)의 본부를 습격하고 탄압을 시작하엿다함은 별보와 갓거니와이에대하야 경무국 전중(田中)경무국장은『아직전북경찰부의 보고는업다』고하면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보천교의 탄압에대하야는 재래의 엄중한취체의 려행과동시에 고려하여오든터이다 언제검삭을 하라는 지시는하지안헛지만 탄압할방침만은 이미 관계도에 지시하여두엇섯다 압수한 문부를자세히 조사한후 적당히 처치할방침이다 금후이와가튼것에 대하야는 철저히 탄압하야 민중을 괴만하는것을 근절식힐 작정이다』

寄附者記念碑除幕

【新興】 함남신흥군(新興郡)에잇서 오직한개소의 사립학교인동고천면동상리(東古川面東上里)에잇는 동성학교(東成學校)는 대정십이년도에 설립된 이래로만흔종준을 내엇스나 항상재정상 군색을 면치못하야 그부근주민의 긔부를 거두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여 왓는데 그사이의긔부바든 총액이 일백칠십여명에게서 이천원에 달하엿슴으로 이둘과부자의 특지에 보답키위하야 지난팔일 래빈 백여명의 림석리에 동성학교긔부자긔념비(東成學校寄附者紀念碑)의 제막식을 그학교교정에서 거행하엿다고한다

碧潼對岸馬賊 高瀨船襲擊

【新義州】 팔일오후일곱시반쯤벽동군오북면 북하동어은리(碧潼郡吾北面北下洞於銀里)대안 대청구촌(大靑溝村)강안에 계통알수업는 마적네명이나타나 상항중인 벽동군 벽동면하서동(碧潼面下西洞)김창하(金昌河)(?)의 소유세고 림선척을습격하야 조(粟)벽포대와 의복 열네가지가격 일백여원을 강탈하야 선부일곱명을식혀 산중으로 운반하는것을 마침오北(吾北)주재소원이발견하고 위협발포한결과 마적은 강안으로부터천메돌지점에 이르러 선부는모다석방하고 부근 만주인을식혀서 물품만 운반하야가지고서곡(西谷)방면으로 도주하얏다한다

市內에橫行튼 大窃盜逮捕

경문학교정부정모물인고 시내각처를 회하하면서 대담하게 절도를하던 룡인군수여면금량리(龍仁郡水餘面金良里)전과이범리런모(李蓮模)(二三)는 그동안지내종로서(鍾路署)에서 지명수배하야 엄탐중이든바 구일밤 시내서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는데 그는 시내삼청정(三淸町)삼번지의이호에 하숙하고잇는 학생김한표(金漢杓)의 현금이백원을훔처가고 시내교북정(橋北町)사는 기생김산홍(金山紅)의집에서 갑만흔금부치를 훔처간것을비롯하야 수십여건의 범행을하야 그피해액이 수천원에달한다고한다

間島共黨關係 二名에死刑
今日京城覆審서求刑

소화오년오월이래 중국공산당의 지휘를바더 간도명월구(明月溝)를 중심으로 농민협회를 조직하고 회원을획득하는한편 반동분자를 박멸코저 방화살인을감행하엿다는 치안유지법위반피고최성훈(崔成勳)(二七)최준(崔俊)(二七)에 관한 복심공판은십일오전열시부터 경성복심법원에서 적(荻)재판장주심 의전(依田)검사 관여미테 방청금지속에열리여 간단한사실심리와 검사의 원심판결대로의 사형구형이 잇슨 다음 열한시 오십분폐정하엿다 이사건의 일심언도는 지난 오월십구일 청진(淸津)지방법원에서 잇섯는데 피고는 전긔 최성훈 최준과 황취규(黃燦奎) 주재권(朱在權)네명으로 최성훈 최준두명은 사형, 황취규는십오년 주재권은 십년징역언도를 밧고 최성훈 최준 황취규세명만 불복공소하여왓는바 황취규는 일전에 공소를취하하야 전긔와가티 최성훈최준두명만 이날출정하게되엿다

十五歲中學生이
疑問의縊首自殺
綠陰下에 버려진 苦海의 悲劇
日記엔『아! 봄은슬프고나!』
原因은全然몰은다

구일 오후 여덟시로부터 아홉시까지에 시내 계동정(桂洞町)백번지의 오호 전요한(田約翰)의 집에 하숙하고잇든 시내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普校) 이학년생 정병욱(鄭炳旭)(一五)이가그하숙집 방안선반에 수건으로 목을 매고죽어버린것을 그집에가치 하숙하고잇든 보성전문 (普專)학생 오의환(吳義煥)군이 발견하고 소관종로서에 알리어서 곳 공(孔)순사부장이 현장을 검증하엿다 이학생은 경남함양군지곡면개평리(咸陽郡池谷面介坪里)정은상(鄭殷相)씨의 둘째 아들로서 그의집은 재산과 명망이 상당한집안으로서 가정도 원만하고 학비도충분하며 아직까지 도모지자살할만한 원인을알수업다는데 원체 나희가 어린소년이고 더구나 녹뎐아희로서 풋사랑이나 혹은세상에대한 회의를품을 수도업다고 하숙에서는 말하엿다 단지 그가집긔장에 적어둔일긔를보면 『봄이와서 꼿치피고 사람들은 모다갑버하다 그런데 나는어떠지갓어서슬프다 개나리꼿츤 내가 가장조아하는꼿이다 이 개나리가 꼿꼿에피여잇고 교들에도가즈런히 활작피여잇는데도 나는어쩐지 이꼿치슬프게만보인다 웨이러케슬프기만할까?』라는 두서업는글발이잇슬뿐인데 무어이 이소년으로하여금죽엄의 길을차게하엿는지는 크다란수수꺼끼로남어잇다

"工夫中" 擔任先生談

회문고보 교무주임선생을 차즈니 놀라운일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네 죽어다는것은 알고잇습니다 죽은원인은 도모지 상상할수 업습니다 가정도 원만하고 학비도 넉넉하며 최근특별히 모든동무들과 싸운일도 업고 선생에게 꾸중들은 일도 업스며 무엇어린소년이 터구나뒷되여서 녀자를알리도업겟고 도모지 알수업는일입니다 학교성적은 뛰여낫것은 업스나 그저 보통은 되는모양입니다』

三百名反滿軍과
二時間餘大激戰
寬甸縣第四區站子沿村에서
雙方의被害가莫大

【新義州】 팔일오후일곱시쯤 반만군토벌차로출동한 관전현대평초주둔(寬甸縣大平哨駐屯)관동군(關東軍)삼십명과 통역생조경광(趙敬廣)등은 자동차세대에분승한후 고자구(靠子溝)로부터 대평구(大平溝)에 향하는도중 관전현제사구참자연촌(第四區站子沿村)에서 반만군좌사령(佐司令)승군(勝軍) 동북인민군(東北人民軍)합류부대 삼백명에게 습격을당하야 약두시간격전을하야 쌍방에 사상자 수십명을 내이엿슴으로 포석자 (蒲石子)수비대로부터 안등 (安藤)대위이하 륙십명과 그곳 경찰서장이하이십명은 구일아침현지로급행하야 교전을 하엿다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舖 普生藥房

白米價또昂騰!
今日石當一圓高
市內公設市場에서一齊히引上
消費階級에一大脅威

천정을모르게 뛰어올르는 벼갑과 현미갑의 뒤를따라 부내공설시장에서는 또다시 십일부터 일제히 백미한키로에 다음과가티 오리식 소매가격을 올리기로되엿는데 우리 가정에서 만히쓰는 한백미(韓白米)갑은 구일이래로 오십전이 올럿다하야 보통한가마니에 십오원삼십전 내지십오원륙십전 한말에 삼원십전 내지이십전식을 밧고잇다

特等白米 一키로 二十五錢五厘
一等白米 一키로 二十四錢五厘
普通白米 一키로 二十四錢

女必從夫의自殺
말다툼끄테남편이죽자
漢江에뒤달려가投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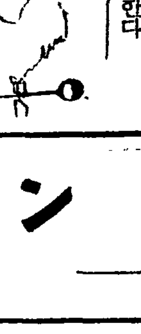
내외간 사소한 싸움끄테 남편이 분을참지 못하여 한강에 몸을 던저 죽자 안해는 세상사람에게 대해서 볼낫치 업다고 마저빠저 죽은자살편극이 잇다 시내 흑석정(黑石町)칠십팔번지에 살면서 황금정(黃金町)四정목 총전운송점(塚田運送店)의 자동차 운전수로 잇는리평선(李平善)(三)은 아흐렛날저녁때 자긔의 안해김성녀(金姓女)(?)와 사소한 말다툼 끄테 술을 잔뜩 마시고나서귀치 안흔 세상을 버리고 말겟다는 한마듸말을 남긴채 나가서 열흘날새벽두시 한강에 빠저죽고 말엇는데 남편이 사실로 죽엇다는 놀라운 소식을 바든김성녀도 살어잇서 가지고는 자긔때문에 죽은 남편의 혼백에게나 세상사람에게 대할낫치 업다고 슯허한 남어지 정신에 이상을 이르키여 가튼날 새벽다섯시에 남편이 죽은 바로 그자리를 차저가 드듸어 빠저죽고 말엇다 한다

失職靑年飮毒

구일 오후두시경에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삼십삼번지서일(西一)려관에 묵고잇는 강원도홍천(洪川)출생의 원삼룡(元三龍)(三)이가 그집방안에서 자살을하려고 만흔분량의 쥐잡는약을먹고 고민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부근 동서(東西)의원에 입원식혀 급히치료한결과 겨우생명만은 구할모양이라한다 그가자살하려든원인은 그가전자에 시내에서 자동차운전수를 하고잇슬때에김모(金某)(九)라는 『빠스껄』과사랑을 속사기게 되엿다가 최근그녀자로부터 실연당한것과함께 직업까지 일케되여 이를극도로 비관한끗해 죽엄을 차즈랴든것이라한다

元山地方에 氷價大暴騰

【元山】 아이스크림장사도 이제는 제법 소리를 웨치며 가두로 진출하고잇는 요지음 원산에는 상수도의 갈수도 말미아마 한낫동안 수도전에서는 물한방울도 안나오게 되엿스므로 부민으로하야금 여천에 갈증이 나는 부민으로 어름덩이로박게 목을 축일것이 업스므로 부득이 어름의 비상시를 낫케될것인바 이눈치를 차린 얼음갑은 작년에 한관(貫)에 십전하든것이 일약곱절오하여 십오전이라고한다 이것도 물긔근이 저낸 한낫현상이라한다



天氣予報

槪況 七五〇미리의 低氣壓은 日本本州의 南海上을 東進하고잇스며 또七五四미리의 小低氣壓은 中國天津附近에잇다 高氣壓은 日本本州의 東海上에잇는데 그勢力은弱하다 日本海及 朝鮮半島도 氣壓이좀 놉다 北滿洲는개이며 朝鮮及日本內地는 흐리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개엿다 흐렷다하며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개엿다흐렷다한다

昨日 最高 二三度六
同 最低 一四度二
今朝 最低 一三度九
今日 正午 二三度四

罷業은繼續되고
警察은主謀嚴探
解決안되는"朝日택시"

조일(朝日)택시 동맹파업단은그후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잇서서 해결의서광은커녕 악화할념려가 잇다한다 현재 직장에도라온 운전수는 십오명, 그새로 모집한운전수가 세명 지방에서 불러올린 응원대가륙칠명으로 차를운전하고잇다한다 일편 경찰당국은 작일저녁부터 한거름압서 파업단의 검거를 개시하야 열시넘어서 최병채(崔炳彩)(三七)를 인치하야 게속취조하는일편 금번파업사건의 주모자를 엄탐중이라한다

師範校一道一校
明年엔咸興에新設
第二次初等敎育擴充案에並行
女師範도五個校增設

총독부에서는 제이차 초등교육확충계획의 실시와동시에 초등교육관계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사범학교의 증설계획을 세우게되여 금년에는 이미 전주(全州)에 신설하고 다시 명년에 함흥(咸興)에 하나더 신설하게 되엇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금후에 축년격증할 초등교원의 수요(需要)에 응할수 업스므로 제이차 초등학교의 증설계획과 마찬가지로 금후십년간에 남자사범은 한도에 하나씩 또 녀자사범은 현재의 경성외에 평양(平壤) 대구(大邱) 함흥(咸興) 전주(全州)의 네곳에 신설하야 남자사범 십이교 (충남북은한학교) 녀자사범 오개교가 완성되야 금후조선에 의무교육을 실시할때에 순응코저하는것으로 이에 관한예산은 매년약십만원식계상할터이라한다 그리고 사범학교는 도립으로 이관치안코 총독부의 직할인관립학교로 경영하여간다한다

時間을嚴守하라

十일시긔념일은『때의긔렴일』 각지에서 모다적화한시시간을선전한다 이날경성에서도 정오시간을 고하는『싸이렌』의소래가우난히컷다 거리에서는 표준시계를들고 시간을마추어주는곳이 만헛다

運動競技

朝鮮籠協에서 佛艦籠球團歡迎會

朝鮮籠球協會에서는 十日午後零時半부터 佛國艦隊 라모피켓트號籠球團一行을 鐘路永保그릴로 招待하야 歡迎會를開催한後 同協會員引率下에 市內名所를求景하엿다한다

올림픽陸上代表 歡送會盛況

伯林올림픽大會에出戰하는 日本陸上代表의歡送會는 十日午後一時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百餘人士가參席한가운데열리어 富永監督의答辭와 鄭籠協會長의開會辭가잇슨後 澁谷監督의答辭가잇섯스며 午餐을마치고 散會하엿다 一行은 當日午後三時三十分 京城驛發列車로北行하엿다

平南卓球爭霸戰 鎭南浦卓優勝

平壤體育協會와 鎭南浦體育協會共同主催의 平南卓球爭霸戰은 七日午後一時부터 平壤高普講堂에서 열렷는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鎭南浦軍이 平壤軍을 十五對十으로 擊退하야 優勝하엿다

【鎭南浦】勝15:10【平壤】
崔永杰(日鑛)3…1崔奎煥(府廳)
元貞淳(無盡)3…1金成煥(道廳)
橘　井(日鑛)0…3崔炳穆(府廳)
金永七(遞信)3…0平　山(無盡)
金義植(殺植)0…3金昌道(實業)
山　下(日鑛)3…2羅鎭一(府廳)
崔在昌(實業)3…0朴義植(日殺)

軟式野球聯盟의 大會日程決定

지난五日發會式을擧行한 全朝鮮軟式野球聯盟에서는 今年度事業中 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大會及神宮競技樂 全朝鮮選手權大會 日程을 다음과가티決定하엿다

▲全朝鮮都市對抗大會
1、各地方豫選=七月下旬까지
2、優勝大會出場屆出=八月三日까지
3、抽籤及協議會=八月十五日
4、優勝大會=八月十六日로부터十八日까지(三日間)
▲朝鮮神宮體育大會兼全朝鮮選手權大會豫選은九月十日까지
1、大會日程 十月十三日로부터十七日까지(五日間)

京城運動場入場者 五月中六萬三千名

京城運動場의 五月中入場者는大人이 五萬五千八十七名 小人이 六千六百五十四名으로 合計六萬三千五百四十一名인데 이것을前年同月에 比較하면 一萬四百七十九名의 增加를 보이고잇서運動熱의 大衆化와 아울러『스포ー츠』의 觀覽熱은 年年히 高調되여가고잇다

米國二大野球成績

【紐育七日發同盟】米國二大野球리ー그戰은 지난七日로서 第十二週를 마저서 同리ー그戰의約三分의 一이 終了되엿는데『내쇼날』及『아메리칸』兩리ー그에는 依然『쎈트루이스』『뉴욕』이 各各首位를 占하고잇다

陸上二百米에 好記錄을作成

【휘ー스톤(텍사스)六日發同盟】全米올림픽 陸上豫選大會의『멕시코』灣沿諸州 地方豫選會에서『텍사스』大學의『하ー뵈ー와렌다ー』選手는 二百米에서 廿一秒一의 世界的好記錄을作成하엿다

棒高跳練習中負傷

京城滯在中의 올림픽陸上選手 一行은 十日 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練習會를 열엇는데 一行中 棒高跳 安達淸選手(早大)는 棒高跳練習中『점프ー』할때 그릇하야 竹棒으로 左手에 負傷을입어 一時는 憂慮하엿스나 其後經過는良好하다한다

キリン淸凉飲料水 景品當籤發表

(キリンレモン キリンサイダー キリンシトロン キリンタンサン)

이미特賣發表하옵신 弊社製造各種淸凉飲料의 景品當籤은 本日當地本町署警察官立會下에 嚴正抽籤한結果左記番號가 當籤되엿사오니 當籤番號의景品券所持者는本年七月一日부터 同月末日까지 弊支店又는 全鮮各地特約店又는販賣店中近處當店에서 所持番號와交換하시압

昭和十一年六月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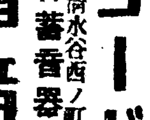
當籤番號

各組イロハニホ共通	番號
一等(五拾圓)	235
二等(參拾圓)	77 404
三等(貳拾圓)	121 284 315 565 864
四等(拾圓)	23 92 217 250 319 323 433 476 548 957
五等(五圓)	45 109 182 257 269 309 444 460 552 627 825 828 903 937 943
六等	殘リ全部

キリンビール株式會社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五〇番地

賣家

京城西大門町二丁目八六番地二層 店舖住宅附京城社稷町一八五番地 瓦家住宅希望者는 附近ㄱ德房에問議하시오



格 レコード 蓄音器
同業ニ限リ型錄四錢要
大阪市東區淸水谷西ノ町 小林蓄音器製作所
電話東四五五九 一品用販賣

朝鮮赤松原木 廉價大賣出

產地—江原道高城郡東京帝國大學演習林
材長 一間(七尺) 一間半(十尺五寸) 二間(十四尺) 二間半(十五尺以上)

右材木의由來는 朝五百年以來皇定封山으로禁養해오던곳인데自今三十年前부터東京帝國大學農學部演習林으로指定이된以後採伐을保護해온關係로樹齡은平均三百年이나되는松木으로柾目이緻密하고成長이良好하야赤味가多量하기때문에腐敗脂堪은勿論光澤이佳良함으로細工用建築用材建具用材化粧用材土木用材로三十餘年前부터日本內地에移出되고잇어으나今年부터는數量이적음으로鮮內願買者諸位께廉價로供給코저하오며現今約三百萬才을高城驛頭에着着上陸시키는途中에잇아오이勿失此機하시고多數注文하여주심을敬要하나이다注文規定은原木及製材品을不問하고迅速注文에酬應하오며遠處로부터의注文은적어도壹貨車以上을單位로하고代金의二割을契約金으로밧겟읍니다

本店 江原道高城驛前 善益木材商會
同 協和製材所
京城販賣所 京城府孝悌町二九七番地 振替口座京城二一三三 電光二六二六番
龍山販賣所 龍山驛前(漢江通一二五番) 電話龍山五一一二番

優美館
黃金町 電光三九五

Gメン의追從을不許하는新話題의Gウーマン의出現!! 六日十日브터空前問題의快作大封切
파社超特作日本版 Gウーマン
巨匠윌니암K・하와ー드氏大作品! 可憐실비아시도니ー氏主演 매르빈다그라스ー 아란바크스타ー 助演
파社特作日本版 피스톨과音樂
알프렛드오ー카氏監督作品! 죠ー지라프트主演 그레스브라도래 변바ー니ー 助演
地方巡業의렬異혼이自動車까지習소리를達磨하엿다!!都會로부터逃亡하여荒野에巢窟를둔갱그!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無名의怪人 單秀人監督 ハヤブサ 大河百代 主演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一二五四番

九日ヨリ十三日迄超豪華篇封切 毎夜三回繰返映寫正午開演入替無 各等大人五十錢學生三十錢均一
次週十四日ヨリメトロ社『猛獸師の子』『POL』『あきれた連中』
▲今週の番組
パラマウント本年度代表作日本版 Gウーマン
ウイリアム・K・ハワード監督 シルビア・シドニー大熱演
かりそめの戀の相手がギャングであつた許りに煉獄を行く若き女の運命!脫走する女囚を廻つてGメンとギャングの愛憎火を吐く大市街戰!
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花嫁の感情
ウエスレイ・ラッグル監督 クローデット・コルベール フレッド・マクマレイ主演
爛漫の戀ないさかひチヨロレーのやうな甘美な舞闘氣!さうした若人の戀の戯れが初夏の宵にかすかな胸のときめきと昂奮を覺えさせます!
PCL特作オールトーキー 夏目漱石原作山本嘉次郎監督 坊っちやん 宇留木浩・夏目初子主演

쓰리지안고
압흐지안함

事務家・学生諸位의保眼에!

로ー도안약

井上獨逸博士 處方
中尾藥學博士 指導

BUSINESSMEN AND COLLEGE BOYS!
Take good care of your eyes! Because:
Your visual power greatly affects the
efficiency of your work.

視力의障害는能率을低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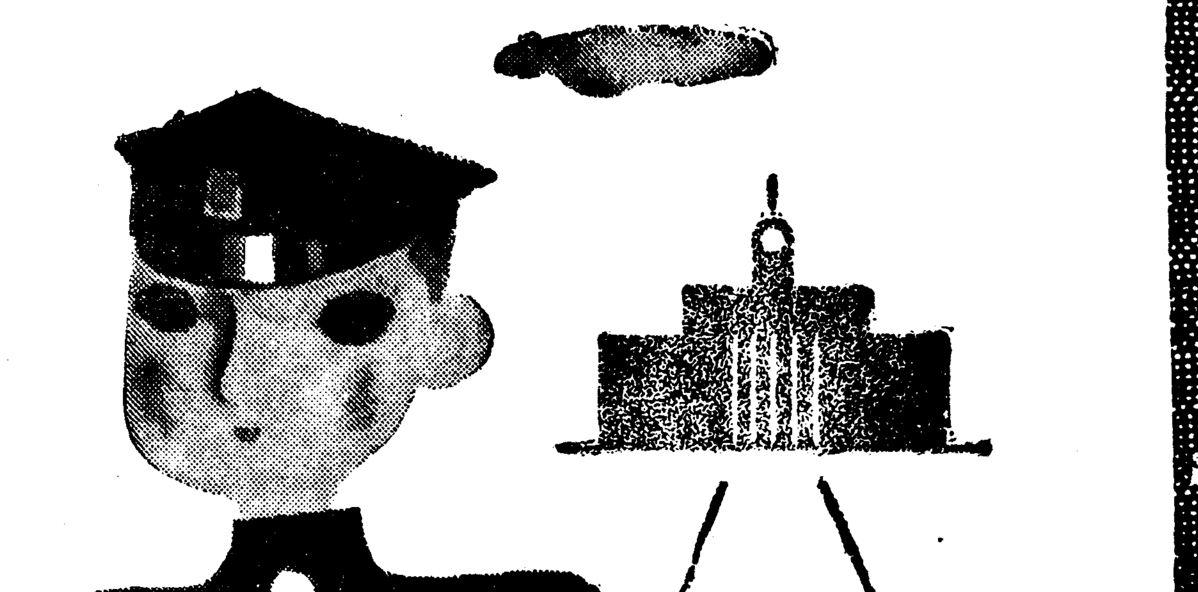
諸君! 諸君은執務中、勉學中、때때로 頭痛이나 倦怠를感하는일은업습니까 이것은 視力을 長時間過度히쓰든지 或은 度가맛지안는眼鏡을 쓰게되면 視神經과 直接連繫되고잇는 大腦質에생기는 異常作用의 發顯입니다。眼과腦가 그러케까지 緊密한關係가잇는것을 알엇다면、諸君은 諸君의눈에 항상充分한休養을 줄것이며、그리고、보담 新銳한視力을 盛케하야 頭腦를明晳케하며、마음껏 執務와勉學에 能率을다합시다。그런데上述한 때에생기는 頭痛倦怠의 症狀을 醫學上……

「眼精疲勞」라하지만、그것은特히記帳、計算、타이피스트、講議의노ー트、혹은編物、裁縫等、細書한文字의讀書等微細한 物體를 보는분에만흔 近代的疾患의 하나입니다。

眼精疲勞에 걸녀슬때에、처음에는 눈이疲勞되기쉽고、物件이흐릿흐릿히보이며、머리가무겁고、짓끈짓끈아프거나、또는 睡眠이不良하게되면、判斷力、記憶力의 減退를 보게되는것입니다。

만일、諸君이、이와가튼 症狀을 自覺하여슬때에는 곳 그原因이되는것을 避하고同時에 ロ－ト目藥과가튼 眞正한眼科藥을 每日數回點眼하야、眼에休養을 주어、慰勞하는것이 必要합니다。그外에 諸君의 걸니기쉬운眼病에……

結膜炎 ― 이란것이잇습니다。
도라홈ー 俗稱 霞目、돌님눈、쑤시는눈、진안질、
學校眼炎 疲勞眼이라고 부르는것인바、療法은언제나 每朝눈을 잘씻츠며、눈곱等不潔物을깨끗시씻고、하로 二三回 ロ－ト眼藥을點합니다。ロ－ト目藥은 그 殺菌作用으로 病源菌을 죽이며、消炎作用으로 炎症을除散식히며 收斂作用、鎭痛作用으로 充血과 腫痛症을退治식히는 性能이 綜合的으로 有效한 效能을다하고 잇습니다。



小兒의眼病

幼兒면、아침 이러나슬때、눈가장자리에 눈곱이 붓호며 甚한것은 눈이떠지안코、또는 힌눈자이에、붉그스레 充血되는바、이것은 흔히 急性結膜炎입니다 어린애기들 點眼에는、시지안코 아프지안코 安心하고 使用되는、特히 小兒들을 爲하야 處方調製한 小兒用 ロ－ト目藥이 가장 有效합니다

―適應症―

結膜炎・角膜炎・疲勞眼・도라홈ー・學校眼炎・眼瞼緣炎・角膜翳・結膜充血・麥粒腫等
俗稱에쑤시는눈、돌님눈、爛目、다락눈、血眼、霞目、삼눈、흐린눈、雪眼、淚眼、疲勞眼、

藥價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어떤藥店에든지잇슴

●新案特許 ロース式 自働點眼容器

★使用法說明 下部의뚝겅(蓋)을때고瓶上部의고무를輕하게누르면目藥은一滴式떠러집니다。藥은조곰도허비안되고便利、衛生經濟를兼한最新式의點眼容器입니다。

本舖 山田安民藥房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엄마 무서워!

쉽게아는것이탈 목욕도연구할일

잘못하다가는여러가지로손해 ◇…위생과미용을주의

몸이 만코 몬지가 만흔 녀름철에는 다른 철보담도 특별히 목욕을 자조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피곤한 몸과 더분한 머리를 회복키 위하야서라도 녀름철에는 자연 목욕을 자조하게시리 되답니다。 그러나 목욕도잘해야망정 잘못하다가는 여러가지의 손해가 봇습니다。 목욕에 무슨 잘못이 잇겟느냐고 하실찌도 모르오나 매사를 쉽게 보는데서 항상잘못이 만타는 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듯고 나시면 의외로 싱거워도 모르고보면 랄이랍니다。 자 이제부터 목욕하는 방법의 강의를 한바탕 주서섬기기로 하겟습니다。

맨모저 위생상으로 주의하실것 멧가지

(一) 넘어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것은 재미업는데 그중에도 심장이 약한분은 아조 재미업습니다。 정부득이해서 들어가시게 되거든 뜨거운물을떠서 몸을 어느정도까지 멱게한뒤 천천이 들어갈것입니다。

(二) 공복이나 식후나 목욕하기에는 다 적절치 못하오며 심신이 정히 피곤한때도 목욕하기에 그다지 조치 못합니다。 설사 그런때 목욕을 하더라도 간단히 마치는것이 맛당합니다。

(三) 목욕한뒤에 냉수를 끼어언는분이 잇는데 그것도못씁니다。

(四) 그런데러 목욕한 즉후에는 되도록 바람을 쏘이지 안하는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

그다음으로는 미용상(美容上)으로 주의할 멧가지

(一) 목욕통속에서 몸을불리지 마도록 하십시요。 그래서는 살결이 부드럽지못합니다。

(二) 비누를 넘어 만히 쓰지 말고 또 비누ㅅ긔운을 깨끗이 씨서 버리십시요。 그러치 안해서는 그역시 살결이 나뻐집니다。

(三) 목욕하고 나서는 찬수건으로 외몸을 말금히 씻스서야 합니다。

(四) 목욕하고 나서는 찬물로 얼굴만은 반드시 씨서야 합니다。

(五) 목욕은 항상 손발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두리를 먼저 씻고 웃두리를 나종 씻도록 하십시요。

(六) 목욕한뒤는 마른수건으로 물기 하나업도록 말끔히 씻도록 하십시요。

×

그러나 우리네로서야 어듸 자긔집에 목욕탕을 해두고 목욕하는이는 드물것이라 대개가 모도 공중 목욕탕을 다니게 되지 안습니까? 공중목욕탕에서야 어듸 한사람의 위생이나 미용을 위해서만 이러고 저러고 할수가 잇습니까? 그러나 우리네는 본래 공중목욕탕을 하든습관이 업기때문으로 잘 익숙치를 모합니다。 거기는 다시공중도덕을 위한 주의가 잇서야합니다。

(一)、전염하는 병을 알는분은 애초부터 오시지를말것

(二) 목욕통속에 드러가기전 반드시 발 겨드랑이 사타군이 가튼데를 깨끗이 씨슬것

(三) 목욕통속에 드러가서는 반드시 때를 밀지말아야할것

(四) 더러운 옷가튼것을 가지고 가서는 빨지말것

"처녀때큰소리지르면 "목은영영버려요

고흔목소리 납분목소리는 사춘긔에 길드릴탓

우리들은 한사람을 대면하기전에 그한사람의 목소리로부터 중대한 인상(印象)을밧는수가 각금각금잇습니다 만약에 창밧게서 사람의 말ㅅ소리나 난다합시다。 그목소리가 굵고나저서 꽉 남자인줄아럿는데 문틈으로 내다보니 뜻밧게 녀자엿다합시다 그녀자가 입부다면입불수록 우리는더한칭 환멸을늣기고말것지요 이러듯 나이찬아가씨의목소리가 조코납분그것이 그아가씨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볼수잇지안켓습니까 녀자가목소리가크면 팔짜가사납다하는 옛말에 헬리가잇습니다。

◇

우리들의 목소리 그소리가 대체 어데서 나오는것인가! 오장육보에서 소사나오는것가트나 기실은 목구멍 중틈에 잇는 성대(聲帶)라는것이여러가지로 진동이되어 나는것인데 이성대는 대체로남자는굵고길고 녀자는짧고가늘게되어잇습니다 그럼으로 남자의목소리는 굵고엿고 녀자의목소리는 높고도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차서 즉사춘긔(思春期)에잇서서『쉰소리』『나즌소리』때문에 비관하는녀자들이만습니다 쉰소리 나즌소리란 선천적으로 그런수도잇지만 대개는그원인이 월경이맨처음으로오는(初經)그때에잇는것입니다 즉열서너덧살때의소녀긔(少女期)로부터 급작스럽게 사춘긔(思春期)에 드러가면 신체의 모든 기관이 활々동을달리하야 정말로완전한녀자의티를 드러나게 변화를부리게됩니다 그시절이되면 성대에도 변화가와서 자연히 목소리도 달리지게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신체의 다른모든 부분의 발육과 아울러 성대가 여지것가지고잇든 그기럭지의 삼분지일쯤 더기러지라고 하는판입니다 그래서 이시긔에는성대의기럭지와 이것을 운동식히는 근육의발육과의 균형이 아직되어지지안허서 전과가튼 이상스러운 목소리가 되어나오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만때 대체로일년동안의 목소리내는 버릇족 목구멍을 잘 양생식히고 못하는데따라 후년의 목소리조코납분것이 결々정되고 마는것입니다

◇

이와가티 목소리가 변하는 시절、이때에 너무 억지로큰소리를 내는것은 물론자미업고、보통때에도 된소리지르지말고、창가연습가튼것도 너무야단스럽게 마려야 됩니다、이런다고 당장에 목소리가달라지는것은 아니나 하로이틀 작고작고 지나는동안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고 마는것입니다

◇

그리고 또녀자는 월경이 잇슬때 큰 소리로 노래부르는 것이 원래 자미업는것 입니다 그것은 감긔들렷슬때와가티 성대가 충혈이되어잇는때인까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로서 주의할것은 술과 담배인데 더구나 술이 더 납부고、간이센 첫갈、호초가루、고초가루등속의 자극이 강한것은 피해야합니다。

◇

끝으로—기왕목소리말이낫스니말이지 어느때에 제일고흔 목소리가 나느냐하면 밥먹은뒤 두시간되는때라한니다。

"면" "도" "하" "는" "비" "결"

목욕탕에서는하지말일

수염을 면도칼로 깍고난뒤가 끼치끼치해지거나、좁쌀처럼무엇이 내솟는것은 원래 피부가 약한탓으로 면도칼끗이지나간자리가 눈에 보이지안는 험어저나가나 헐구녁으로 세균이 드러간까닭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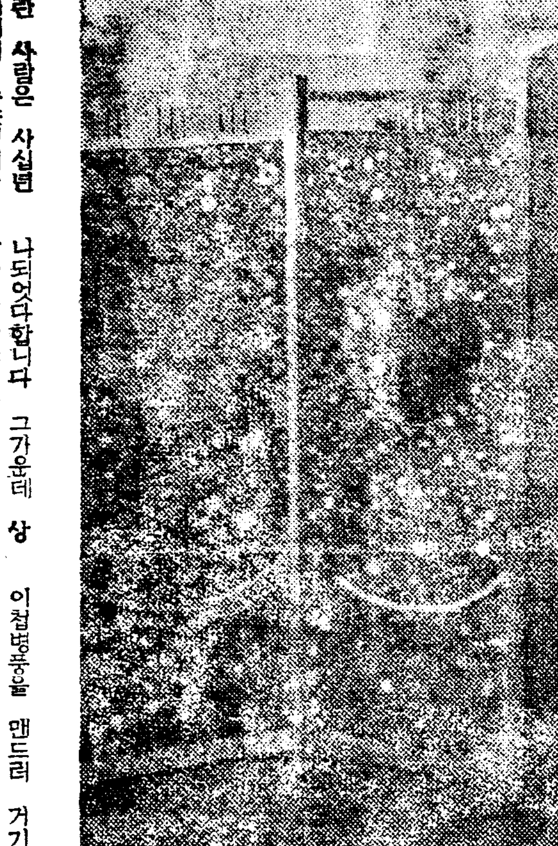
이런일이업도록 하자면 면도하기전에 몬저 뜨거운물ㅅ수건을 수염자리에 더펏다가면 다음에골드·크림을 잘발러 털이부드럽게해야 합니다。 그런뒤에는 면도로 번번히드려깍지말고、손에는 힘을안드리는것처럼 면도칼의 무게로다 쓸금쓸금미러야됩니다。 그리고 될수잇는대로 치커 꽉 지안토록하는것이 조흡니다 면도를 다한뒤에 그자리를잘씻고『크림』이라든지 지방질이 잇는 화장액을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

그리고 또한가지 주의하실것은 여러사람이 모이는 목욕탕에 드러갓슬때 거기서 면도하는분이 잇는데 공중목욕탕은 별사람이 다모이는곳이라 자연 여러가지 조치못한세균에 만흔것은 정한리치입니다 그럼으로 이런데서 면도한다는것은 위험한일이라고 볼수잇습니다

석냥깨비로 맨든교회장

영국『리버풀』의『보—만』이란인은 심심할때마다 석냥깨비를 가지고 집을짓기시작해서 여섯달만에 사진에보히는바와가튼 교회당의 모형을맨드러노앗습니다 이교회당은 그곳엇던장로교회를 모델로한것이며 이집짓는데 든 석냥깨비는 약만개가량된다합니다



길에서주순단주로 병풍만든사람

서전의서울『스톡호름』에 사는『스벤손』이란 사람은 사십년동안 길거리에서 주순여러가지 단추가 자그마치 삼천개나되엇다합니다 그가운데 상당히 이상야릇한것도 잇는데 이사람은 최근에 사진과가티 이첩병풍을 맨드러 거기에 해와달과 별의형상을그려 단주로 해바엇다합니다

童話

정수봉의달빗 (一)

成俊德

녯날 엇던곳에 수정봉이라는 아조 놉드란산이잇섯습니다 이산은어지도험한지 산꼭대이까지 한사람도 올라간사람이업섯습니다 대나제도 숲속에서는 주리도팡이들이 이산의주인공인것처럼『엉흥 엉흥』울면서 사슴과 토끼의간담을 놀래게할뿐이엿습니다

이수정봉이라는 산은 지금도 저 세계의명산이라고 자랑하는 금강산일만이천봉중에도 하나가잇습니다 그러나 이수정봉은 지금잇는 그금강산의수정봉은 이아니엿습니다 이수정봉은 엇지도노픈지 산봉오리에는 사철눈이차혀잇고 구름이 또떠펴잇섯습니다 그러나 보름밤만되면 이수정봉은 달빗과가티 화냔하게 비처서 그아래 근방은 퍽도 밝엇습니다 이상한것은 이수정봉에서는 보름밤이되면 어데서인가 처량한 노래소리가 흘러와서 그아래에잇는 마을사람들은 모다 잠들을못잣습니다。 바람을타고 은은히 흘러오는 그 슯흔소리를드를때 늙으니들은 지나간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젊은사람들은 공연히 녀슯허코 울기도하며 또어린애들은 그저춤을덕실덕실추면서 밤을 고스라이새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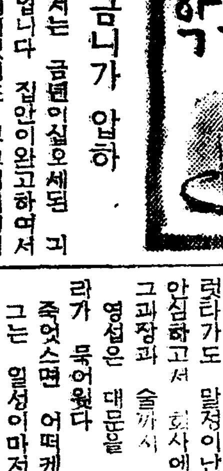
이러다가 그이튼날아츰에는 꼭 꼭 이수정봉미테는 피투성이가된 남자인지 녀자인지 분별할수업는 송장하나가 굴러떠러저 잇섯습니다 이럼으로 보름밤만 되면 이동리에는 늘 슯흠에저저잇고 흘러오는 그노래소리는 더한층구슯헛습니다

어느날이엿습니다 사탄말이란 동리에서 움집을짓고 사는룡갑이란아해는나무를 하려이수정봉엘 올러갓습니다 여긔저긔서개울물소리가 콸콸들려오고 솔닙소리는 바람에 쏴—쏴— 하고 들엿습니다 룡갑이는 허정업시 수정봉을작고 올너갓습니다 얼마를너갓는지 아래를 내려다보니 깜하케 보이는데 문득한편쪽을 바라보려니까 아—참놀날일이엿습니다 어데서와스는지 아지못할 왼조고마한 어린애가 천여만여한절벽에 결여서 금시떠러질듯한데 또 그옆바위틈에서는 큰 구령이가붉은혀를 널눔거리며 그애를자바먹으려고 기어나오고잇섯습니다 이를본룡갑이는 잇는힘을 다하야 큰돌을드러던저 구렁이를때려죽이고는 급히 그 근처에잇는대덩이 넝울을 뜨더서 나무가지에 매고 그줄을타고나려가 그어린아해를 구햇습니다

그러나 그어린애를 구해노니까 어데로갓는지 업서저버렷습니다 룡갑이는 너무도 이상하야 그어린애를 찻고저 숩풀속을 헤매엿습니다 얼마를 찻고 차저도 그어린아해는 보이지안헛습니다 그때룡갑이는 언뜻생각하나를햇습니다 그는다른것이아니엿습니다 이런험한산속에 어린아해가 잇슬때에는 보지안허도 이근처에는 사람들이 살고잇다는것 이엿습니다 그어린아해를 차저 어데까지든지 그어린아해를 보고저 산풀이 길길이 욱어진 숲속을 헤매다가 고만 길을 이럿습니다 룡갑이는 겁이 펄적나서 나갈곳을 차젓스나 그러나 가는곳마다 숩풀이엿습니다 엇절줄을 몰라서 황겁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나갈길을 찻다가 그는 또 수렁속으로『풍』하고 빠젓습니다。

애—빠르다 빠르다。
우리형 자전거 참 빠르다。 여기서 읍내까지
삼십리데두 아침에
나가더니 벌서 점심전에 도라오는구나、내모
자 사왓나 가볼까。다
름박질— 따르릉 따르릉。

(글쓴사람 리준호)



어금니가 압하

問 저는 금년이십오세된 긔혼녀자입니다 집안이완고하여서 몸에 병이잇서도 부끄러워서병원에를못갑니다 작년봄부터아래구석어금니가 수시로시작하드니 그후로 몃번이나 죽을번할만치 압허서 근히 조고마한 양약국에서 약을사서 발르기도 하엿스나 도모지 완치가되지를 아니합니다 가정료법으로 무슨조혼약이잇스면알으켜주십시요(淸州一女性)

答 당신에 말한바 어금니부분이압하서 고생을한다하니 그부분과 어에따라서 그치료법이달르니만치 더욱자세히는 대답하지못하겟스나 대체로 벌레먹어잇는나는 전문의사에게 수술을바더야 할것이며 가정료법으로는 대단곤난합니다 (세부란스病院 金[illegible])

손등의사마귀

問 처녀어온데 손등에 사마귀가 낫스니 험어시 속히 근치되는 법을 하교하여주십시요 (市內 一讀者)

答 강한산류(三鹽化醋酸或濃[illegible]酸)로 지지거나 혹 큰것이면 적출수술(摘出手術)을하여야됩니다 어느것이나 가정치료는 어렵습니다 (小川外科醫學博士金[illegible])

連載小說

아카시아 (十)

安碩柱 作
金熊超 畵

영섭은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덜컥하엿다 그는 어제밤 일성이가 알튼 꼴을 생각하고는 그것이 그아이의 죽엄을예시한 전제가아니엿든가 오늘아츰 그아이가 눈물망퉁망퉁뜨고서 자긔를 처다보며 코를쥐고 흔들때 그는 반가운맘에 웃긴하엿스니 마음은 슯헛다

그것은 어미업는자식의 남의젓을물고 사는 그정상이 가엽기도하려니와 그아이의눈이 호리것이다 어룬도 마즈막 운명하기전에는 의례히 정신이 똑똑해저서 평소와가티 이야기도하지만 그의눈은 언제나 호리여보혓다。 그것은 그의안헤도그랫섯다

—이아이가 멸지안어 가겟구나—

하고 영섭은 속맘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언짠엇스나 어린아이의 간괴라것은 어느아이나그런다가도 말정이난는수도잇서서 안심하고서 회사에나아갓고 또 그과장과 술까시 먹은것이다

영섭은 대문을 드려설때 다리가 묵어웟다

죽엇스면 어떠케하나!

그는 일섬이마저 업서지면실로 미치든지 그럿지안흐면 중병이들지모른다

영섭은 마루끄테 오자 유모가 뛰여나와다

『큰일낫서요』

유모가 부르지젓스나 영섭은 웃독이서서 잇슬뿐이다 그는임이 유모의 울음을듯고 만사가 결정된것이라 한것이다

『아기가 암만해도……』

하며 유모는 흐득이며 목독개 베가티 서잇는 영섭의 그무섭게뜬 눈을 보고 입술을떨며말햇다

『그럼 죽지는 안헛나요』

영섭은 유모가 —암만해도—란 말에 아즉 그아들의생명이 끈치지안흔줄알고 조금 숨을도랏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는 구두를벗고 마루로올라섯다

『오늘회사에를 나가신뒤에 아기가 바짝애나서 금방 죽을듯죽을듯햇서요아기혼자두고 의사를 부르러갈수는업고 그래서 하—도 답답하기에 엽집사람에게 부탁을햇더니 의사가업드라지요 그래 기름을 끄려먹이든중 혼자서돌릿드니 조곰돌린 모양입니다만은 아모래도 심상치안허요』

유모는 방에서 새여나오는불빗에도 새파라케죽은얼굴이다

『너무 고생을 식혀드려서 미안합니다』

영섭은 유모가 혼자 애쓰든 광경이 생각이나서 측은해보혓다

영섭이가 방으로 드러갓다 아희는 포대기를덥고 드러누엇다 쌔근쌔근하는숨소리가 영섭의 가슴을 때리는것갓다

그는 어린애의아프로 가안젓다 손을만지니 싸늘하다 그러나 머리는 더웟다 얼굴은 부은모양으로 전등불빗에 더욱창백해보힌다 눈은 감은채로 입근처에 경련이 이러나서 실룩거린다 목구녕에서 가래가 끌른지숨을쉬는대로 가르렁 가르렁한다

『똥、오줌은어떠케 누엇나요』

영섭은 등뒤에섯는 유모에게 무럿다

『네—악가 나절에 푸른똥을누고 한삼십분전에 오줌을 누엇는데 아조노—란 오줌이서요』

『네—』

영섭은 무슨생각을 하엿는지 벌덕이러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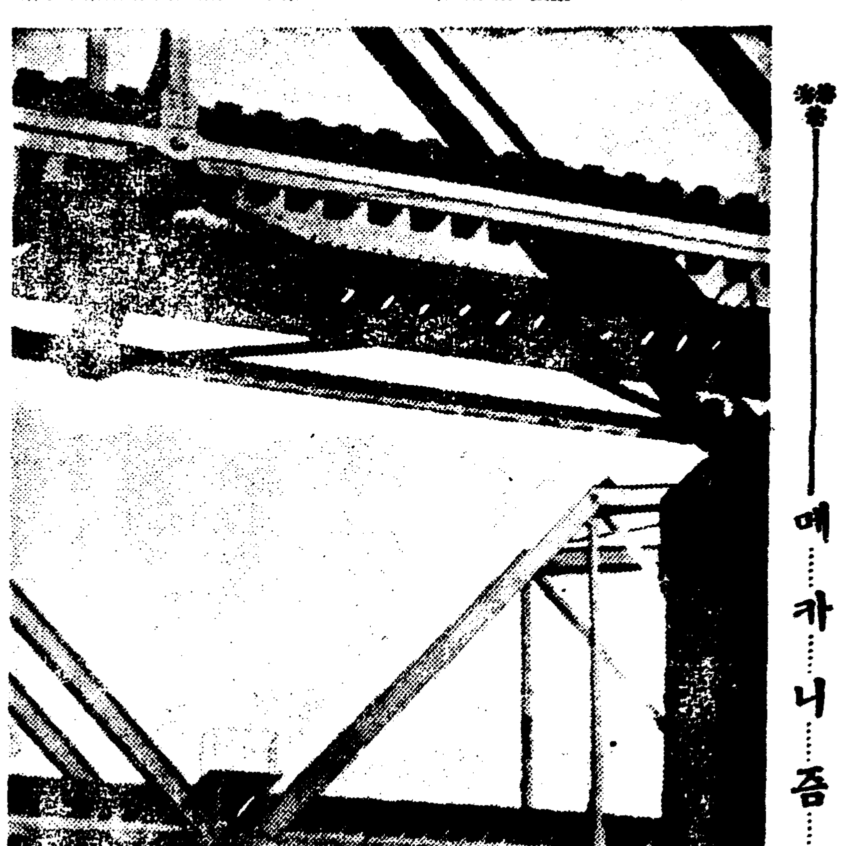
『내 아모데가서나 의사를 불러올게 잘좀보아주십시요』

영섭은 밧그로 뛰여나아갓다 자긔의 아들도 아들이려니와 세상에 나오지 몃달도 못되는 작은생명이 알코잇는 정상이 가엽섯다 또자긔에게는 이일생이 가얼마나귀중한 존재엿든가。

영섭은 회사와 관계가밀접한 정의사를 찻기로하엿다。

이의사는 밤에는 별로 왕진을 아니하는 이로 료리집에나 그럿치 안흐면 첩에집에서 밤을보내는 때가만흔고로 혹시업스면 랑패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맘으로 뛰여간다。

밤은 엄이 기펏다 큰길거리에는 자동차나 기생 혹은 술주정군이란 인력거가 번화할뿐이다。



메카니즘의立體圖

六月創作評 【四】

順坦한文章의叙述과 稀薄한小說的暗影

朴英熙

『青春素描』 李璿熙作 (朝文六月號)

氏의 身邊小說인듯 십다。中國에서 생긴 일인데, 異國에서 넘며 하지 못한 生計를 하고 잇는 한 家族—아들, 어머니, 누이동생, 아버지, 아버지의 妾이, 뜻하지 안흔 砲煙을 避해서, 카페『마도로스』로 隱身하엿다. 그러나 하로 이틀에 뭇나지 안는 싸홈에, 남의집 션세를 너무 질수도 업서서, 主人公인 아들은 참호를 파는 勞働者로 登場하엿다가, 총알에마저서 負傷하고 그의病院에누어 잇는데, 그의 아버지는 妾에게 빠저서 問病 한번 오는일도 업슬뿐만 아니라, 妾과 共謀하고, 큰마누라 식구를 全部 朝鮮으로 쪼차 보내려고努力하는 까닭에, 하는수업시, 어머니와 동생을 다리고 歸國하게된다. 그런 까닭에, 백일몽 같은 우충중한 강남의 집중미에서 실낫가튼 그의 생명은빠르르 떨고, 질긔한 강남의 광야에서 새파란 그의 청춘은 참이 지밟히엿스며, 붉은 선혈은 애끌캐도 내청춘을 조상하엿다는 것이다。이것이『青春素描』의 이야기다。

나는 이 作品을 처음부터 끗까지 아모 거치는것 업시 읽엇다。平坦한 文章이다。그러나 이것이 小說이며 그價値에 關한 事實的感想을 글거모흘때에는 文學的 作品으로서 不備한것을 몃가지 차저 내게되엿다。事實을 叙述만 한다고 作品이 아니라고 速斷할수는 업다고 하드래도 作品의 機構가 서지 안는다면 나는 생각한다。『내러티부』로서는 매우 流麗한 文章이며 順滑한 構想이 드러난데가 업다。그러나 어디 한군데 異한 까닭에 事件에 對한 流麗한記事와, 事件에對한 小說化가, 各各 그 領域이 다르다는 것이나 特히 短篇小說은, 作者가 表現 하려는部分의 充分한 描寫가 잇서서, 말하는 實感이 나타나야 하겟다는것이다。

그런데 이小說은 主體가 다만 順坦한 文章으로 自己生活를 叙述하고 말엇다。特히作品全體우에 떠돌아야할 異國情趣가 殆無하매, 그事實이 異國에서 생긴 일인지, 아닌지를 알수업서서, 한個의 架空的 虛構처럼 생각 되든다。그리고 戰亂과 妻妾의 苦惱, 아들의 悲哀, 이 세가지가 어우러저서 이作品이 構成 되엿는대 戰亂을 그리려는것도 보이자 안혓고, 家庭의 不和를 描寫한 痕跡도 업고, 그러타고 靑春의 素描가 深刻히 그려여 지지도 안혓다。이 세가지의 갈래가 各各 호며하게 얼크러저서 어느것이고 한가지의 特徵도 充分히 發露되지 안혓다。가다가다가 小說的 暗影이 남실거리면서, 이『로맨스』의 領域에 君臨 하지 못하엿스나, 이러므로 藝術的 價値의 印象이 아조 不足하게보인다。그러나氏가『로맨스』의 小說로 압길을다 는다면 벌서 그路程의 半分을 거러왓다고 하여도조흘것십다 말하자면, 生活難과 아버지의 無慈愛로서 不具者가되 靑春을 위하야, 同情의 눈물이 누가업스리요마는, 이것은 風景을 바라보는 寫眞이 되지말고, 生生한美術的繪畵가 되기를 바라는바이다。

『狂風客』 李鳳九 作 (朝文六月號)

구 한국시대 수비대의 한사람이엿든 韓兵丁의 生活記다。歷史가 박귀고 時代가 달러지매 몸이 漂浪의 客이 되여서 괴나리 봇짐을 둘러 메고 朝鮮江山을 도라다니게 되엿스니 그중에도 지내난 軍隊生活이 그리워서 라팔소리만 나면 신이나서 펄펄 뛰엿다。葡萄園에서 열을 보게 되엿는데 主人이 狂風客의 心境을 洞察하고는 라팔을 한個 사서 주엇드니 어느날 눈오는밤 그는 라팔을 불면서 飄然히 집을떠나갓다는 이야기다。

創作에잇서서의 個性과普遍性 ⑬

白鐵

생각컨대 詩人이 圓의中心地位에 傑出한人間으로 서잇는것은 詩人이 世人과 隔絶되여잇는때문이아니고 도리혀 人類의代表者인까닭에 그는 一般人이 能히 늣기지못하는것을 自然或은 民衆 周圍에 울흑이는것을 몬저 代表的으로 늣기고 ……表現……이하는데不過하다 이때에잇서 詩人!이 그의自我를 內心가리 反省하야 가장 個性的感情을 解放하는 境遇에 그것은 몬저말 한 그切實味와 迫眞味와 誠實性 眞摯力에 依하야 一般詩者는 그巨大한共同性에 參加하는 것이며 그에잇서 讀者自身의利益으로는 거긔까지 的確히 미치지못한곳에 萬一 文學의 大衆化問題가 잇다면 그것은 이러한 意味에서만 그實現이 可能할것이다! 그것은 淺薄한 常識의解說에 依하야 共同態度를取하는 것이아니다 自己自身 아메 變形되여 가는 自己自身을보는것 그러고 實際로 어떤別個의 性格으로 되는것 그것은流行病과 가티 全觀衆에게 變形되여가는 것이 아니면 아니되는 까닭이다!

그리하야 個性의 極致가 그切實 迫眞味가 完全히 發露될때 거기에 心魂의 深淵이 綻然히 發見될때 그곳은 個性이 普遍과 合致되는때 또한 人類와 巨大한 共同이 所致되는境地인것이다!

나종으로 남은 問題가잇다! 그것은 小論가운데에 取扱하는 ……主題……와 내가 現實과의關係 내가 여기서 그처럼 個性을 主張,擁護하고 잇는것은 現實그것에對하야는 무엇을 肉迫하려고하얏는가하는 問題다!

今日과가티 墮落되고 混亂된 曖昧한 時代에잇서는 文學을위하야 커다란 情熱이 外部에서 올수업는 까닭에 이편에서 主體的情熱에 依하야 反對로 그것을 支配하고 積極的으로 情熱을 注入시켜가는곳에 作家가 生活할 唯一의 길이잇슬줄안다! 그리고 그것은 現實에對하야 生活하는 作家의 個性態度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때에잇서 內部의 主體的情熱에 依하야 그 暗黑한 주위에 向하야 血路를 開拓하고 强하게 산다는것은 그 暗黑한 壁을 個性的으로 뚤고 나가서 主體的으로 生의力量을 發揮하는길박게 進取할 方道가 업스며 또한 그것이 今日文學의 意慾이되는까닭이다 今日이 아니라도 作家와 人間의 生의 基本方向은 이個性的인 方面에 잇는것이 明白한일이다 ……意義…… 은 여기에대하야도 다『잇는말을 어自己限界하고잇는』 藝術家에게나 人間에게나 最初의것이며 모한最後의것이며 가장 必要한것이며 그중노픈것이다 그것이 必要한理由는—人間이自己를 限界하지안흐면 現實에서 世界가 그를 限界하야 그는叛逆되는까닭이다 世界가 그를 叛逆되는 理由는—人間은 點에서만 有限할수잇는까닭이다!』라고。 그리고 一面에서만自己를 限界하는때 不過하며 그러한 場所에서만 人間은 無限한 力量을 所有할수잇는까닭이다!』

하니 그러타고해서 여기서 個性的으로 사는것은 過去의 資本主義文學에서 取扱되여잇는그 個人主義的 傾向의 延長으로 自己享樂 自己發展에 覺悟하야 現實을 逃避 躊躇하는 主觀的態度가 아니고 도리혀 그산現實을 通하야 個性을 極度로 擴張할때에 그個性的 典型的 切迫味가 現實의眞實、普遍에 貫徹되고 그것을 肉迫해가는事實을 意味하고 잇는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個我와 客體를連結하는 統一을 생각하고잇스며 그統一은『我』의個性과 客體의 眞實性을 敗棄하는것도 分離시키는것도 아니고 도리혀 各己의 個性을 빗나게하는 同時에 그眞相을 明識하고 統一하는 것을 생각하고잇다 또한그러한 意味에서 文學은 一定한 歷史的階級的 情況과의 關係下에서 形成되는 事實과 自己의 個性을 眞實히 發揮한다는것도 自己의 生活하는時代와의 生生한 ……聯關……에依하야서만 文學도 그의眞實性을 獲得하는것을 意味하면서도 그것은 단순히 階級과 時代의 一時的 要求에 隨應하는데 머저지지안코 그以上의 恒久한內容을 가지고 잇는것이라고생각된다!

個性을 强調한點, 그것은 文學에잇서서 普遍性에 到達하는 本道인同時에 今日의 現實에對하야도 切實한 意義를 同伴하는 問題라고 나는 理解한다。(了)

一隨筆一 文學人의觸感 ⑥

蔡萬植

我觀國際風景【2】

英佛이 허울만남은 國際聯盟을 떠밧고나와서 눈을 부라리며 귀속말로는 『이자식아 너와 내가 먹든건 채ー갓서!』 하고 거드로는 『侵略國 伊太利에 制裁를 주라!』 고 호통을하다 그러니까 伊太利는 亦是 귀속말로 『그래 이자식 돌아 너이들만 먹고살레나?』 하고 거드로는 『그러한 不公平한 國際聯盟에서는 脫退를 할레다』 고 버틴다. 그바람에 英佛은 풀이 죽어서 『저게 왜저러케 악을써? 실업시 야단나잔햇나! 저걸 살살 달래야겟군 그래야지 설건드렷다가는 큰코 다치겟데……』 라는것이다 果然 그들의 코는 크겟다

◇

都大體 英國이며 佛蘭西며 그밧게 米國이며 여러나라 모다가 伊太利가 애디오피아를 잡어먹은것을 正義에 어그러젓나 어쩌니 한다는것이 얄미운소수작이다 『이솝』이약이에 나오는 당나구가죽을 쓴 이리가 즉 그들이다

英國이나 佛蘭西가 아프리카를 征服할때에 英國이 印度를 佛蘭西가 安南을 米國이 黑奴를 征服하고 다스리고할때에흘린 검둥이의 시뻘건피는 아즉도 世界植民史의 페이지 페이지에 鮮然히 저저잇다 아즉도 가 아니라 地球와가티 남어잇슬것이다

그러케 해서 모다들 『검은고기』를 먹고 살이 피둥피둥쩟스면서 自己네동무 伊太利가 요새와서 하나남은놈을 좀 요란스럽게 잡어먹엇기로니 입이광우리구녁가튼들 말이 무슨말이꼬?

◇

世上은 아즉도 가운센놈과 협잡군이 得勢를 하는판이다 英國이요 佛蘭西요 米國이요 伊太利요 하는게 그들이요 깐띄ー요 蔣介石이요 케말파샤요 하는게 그들이다

人類는 그래서 아즉도 놀라고 속아서 苦憫을 하고잇다 그러나 이것은 人類가 밟고넘어가야만할 타고난 運命이다 時間을 縮地法한대도 그것은 免할수업는 運命의 한고패다

『議會政治는?』

이런 어마어마한 表題를 내노니까 무슨 굉장한 論陣이나 펴는가해서 눈을 흘흘 사람도 잇겟지만 實은 泰山鳴動에 쥐한마리가 뛰어나올둥말둥이다

二月스무엿새날 東京에서 한바탕 우당퉁탕 야단법석이가 나더니 정승판서들이 싹 갈라엇다 거기 새로 드러선 當世 議政이 누군고하니 前에 새도 떠르르하든 큰 外交官이요 붉은로서아에 大使로가서 잇고 그러고 도라와서 外務大臣을 하더니 『工作工作』하고 不聽한 赤色熟語를 내다내드든 廣田대감이다.

그래 조금잇더니 議會가 이그대로 잇는채 日比谷座라든가하는 舞臺가 부르는 第六十九特別議會가 열리엇다

나에게는 天下에 승겁기로 議會터퍼먹을것은업다 議會記事가 만히실린 新聞을보면 院外團이 柔道로 누구를 메어꼬젓다든가 병을 집어던젓다든가하는 그런것이나 잇나하고 차즐뿐이지 그저普通거라면 하품이나고 보기가실타

『無産黨 代議士가 열여덜이나 나왓다고?』

◇

그래 다른거야 興味도업고 알지도 못하는터인데 이번 議會에서 주거나 밧거나 한것가운데 『腹切事件』만큼이나 내 눈에 띄인것이 하나잇서 그것을 뇌살거리는라고 이렇신큰表題를 자가만한것이다

衆議院에서。 어느 代議士가(일홈은 이저바렷다) 『왜 今年의 메ー데ー를 禁止하엿느냐?』 고 質問을 하니까 廣田대감이 答辯한가운데 『그런 西洋홍내는 아니내어도 조타』 고 햇다한다

요즘 非常時日本의 非常時內閣의 非常(鐵)總理大臣다운 대답일법하다 그러고 퍽 자미스러운 대답이다

그런데 이번 議會에는 한獨特한 制服이잇섯스니 그새까지는 『하오리』에 『하까마』를 입은 그런 禮服으로도 出席케하든것을 一切 禁하고 반듯이 西洋禮服을 입게한것이다。

그래서 無産黨派의 代議士들은 여간만 절절매게아니고 여간만 廣田대감의 『西洋홍내』를 기조아하는것을 빈정댄게 아닐엇다고 한다.

그런판에 『메ー데ー』는 西洋홍내라고 답변을 햇스니 재미가 잇다는것인데 그러나 내가 이약이하려는것은 그것이 아니라 더 자미가잇는 수수꺽기다。

무엇이냐하면 廣田대감이 그러케 으것이서서 『메ー데ー가튼 그런 西洋홍내는 아니내도조타』 고 답변을 하는것을 그 代議士나 或은 다른 代議士가 얼핏 『우리가 시방 아러고잇는 議會는? 이것은 西洋홍내가 아니고무엇이냐?』 이러케 물엇다면? 아주재미잇섯슬것이다。

이 아주 재미잇는 質問에 廣田대감의 답변은 무엇이엇슬고? 대게궁금해서 나는 생각을해본다 『야이 또 노ー』 라고는 아니햇슬것이고 或 대감은 外交官에서 올라온분이니까 척 外交사령을 써서 『그러니까 『기카이』(議會)라고 하지아는가?』 이러케 답변을 햇슬가?

내下宿이 바로 그대감의집여피라던 시방이라도가서 물어보겟는데 여기는 너무 멀어서안되엇다

一散文詩一 어—떤—風—景

金大均

蜜柑色 첫여름의黃昏은 숫장수안 아스팔트우에 노곤하 가려안젓다

都會의午後六時—수만흔 勤勞人의 洪水 絢爛한 近代式建物이 키대기내기를하는 진고개어구에 개미떼처럼 옹기종기 몰켜선『人間』의떼떰이를 나는 거름수잇섯다

어련애 코무든돈을 갈거올리난 怜悧한 商賈가 손재주를 하나부다 여기고 나는 平凡히 지나가버리랴다가 그래도 마음한구석이서운하야 슬ー쩍 넘겨다보앗더니

참 내 어처구니가업서서… 나의압 엽 뒤에 퉁나물가티 둘려슨 작자들의 얼굴판을 나는 차례차례 보앗다

아ー 비소, 경멸, 호기심의 百花爛漫이 여기에잇다 우리들의—나와그들—눈아페는 번죽조흔 상파데기를한 장사치가『금붕어』를가득실은 수레를노코잇다

눈딱불이 배뚱뚱이 두갈래조라 큰놈 작은놈 가지각색의 魚族이 동그마한 나무통안에서 放良목 노집가튼 북작이를 치고 한편에 오두마니 올려안진 『보헤미아』製瑠璃 어항속에는 女王가티 날신 몸맵시의딸기빗 붕어가 간들어지게 鰭部를 흔들어 데이고 잇지안흔가

天國과地獄!

『대체 당신네들은 무엇을구경하시나요』 금붕어 장사가 하고만흔데 하필 이곳에서 파라떠 노흘줄 할아차가 어데잇는가 저윽히 의심하얏기때문이다

『친구 퍽은 업간이로군』하는 눈초리로 親切無比한 나의 이웃양반이 엄연히 대답하는것이엿다

『저것보우ー 저 지ー지애놈이 모파수통에서 밥풀을떼여주니까 금붕어란 놈들이 바더먹느라고 戰爭의 騷亂을 치르는구료… 주는놈도 주는놈이지만 참바더먹는놈도 우습지를 안소』

하마트면 우렁찬 高聲이 나의목에서 터저나올뻔햇다

『정녕 우수운놈이 누구란말이냐』

꿈을머리 거ー지애가 Muse의 모아들로 내눈에 어리엿든 黃橘빗 黃昏이 다

朝鮮俚諺에對하야

=그蒐集과整理의必要性=

④ 金思燁

ㅌ、外來(特히中國)諺 例、猫頭懸鈴、燈下不明。

이와는 角度를달리하야 內容에依한 區分이잇슬것이나 煩雜을避하야 이에는 省略하며, 그다음 貧弱한 筆者의俚諺集을主로하여 朝鮮俚諺의 形式에對하야 一考할까한다。

俚諺은어데까지든지 抽象的表現을 避하고 具象的表現을 즐기는 傾向이잇서 한事物의 度數를 表示함에도 그저漠然히 都董多少等의 形容만으로 滿足하지안코즐겨數字를 明示하여서 더緊切한맛을자아내게한다。

내돈서푼은알고 남의돈칠푼은 몰은다。
書堂개三年에風月짓는다。
덤혀노코열녀냥반
못처럼陵參奉을하니까한달에거동이스물아홉번
식끝놈이서울놈보다먼저배롤알는다。
열길물속은아러도한길사람의속은모른다。
홀아비는이(虱)가서말과부는銀이서말
열소경에한막대
열손까락에어느손꺼물어아프지안흘가
열놈나그네하로길밧븐한다。
문장수三年에궁둥이짓만남엇다
한냥짜리굿하다가百兩짜리징깨친다
그물이三千코라도벼리(綱)가웃듬

俚諺에는 對偶가 相當히만타。이것은 中國俚諺의 影響을바든것으로 이에는 두가지種類가잇다。同類의 事物을 聯結하여서 對偶를 짓는것이잇고 또하나는 그와反對로 全然相反한 性質의 두物件을 對化식켜서 쓰는境遇가잇다。

盜賊의때는벗어도 화냥의때는 못벗는다。
가루는칠수록고와지고 말은할수록거칠다。
말은하여야맛이잇고 고기는씹어야 맛이난다。
머리는곳부터갈고 말은밑부터갈는다。
드는줄은몰라도 나는줄은안다
뛰는놈이잇스면 나는놈이잇다
뫼돗(野豚)잡으로갓다가 집돗(家豚)일헛다。
물은건너보아야알고 사람은지내보아야안다。
불업는火爐 딸업는사위
싸홈은말니고 흥정은붓친다。
옷은새옷이조코 사람은옛사람이조타。

俚諺에는 一見矛盾된것과 가튼 文句 卽 파라독스(Paradox)를使用하거나針小棒大한 誇張法을써서 人聽을 놀낸다。

먹고서죽는다。
개밥에도토리
大臣댁송아지白丁무서운줄모른다。
배꼽이배보다더크다。
病身子息孝子노릇한다。
작은고추가 더맵다。
大匠장이집에 식칼이업다。
독기가진놈이 바늘가진놈을못당한다。
무당이제굿못한다。
船價업는놈이배에먼저오른다。
고래싸홈에새우등터진다。
鷄卵으로白雲臺치기。
見蚊拔劍
바늘盜賊이소盜賊된다。
집태우고바늘줍기
하로강아지범무서운줄모른다。
못된송아지엉덩이에뿔난다。

口調에알맛고 傳唱하기쉬운것은 記憶하기에 便利할뿐만아니라 速히四方으로流行되는다。이런까닭에 俚諺은 흔이詩歌의 體裁를갓조운것이만흐나 비록朝鮮俚諺은 支那、歐洲等地의 俚諺과가티 頭韻脚韻等押韻의 形式은업스나 聲律에잇서서 四四、五五、三五、三三、五調等으로된것이 比較的만흐니 이것은 口誦에 便利하기爲하야 歌謠의形式을 暫時빌린데지나지못하며 그中에서도 四四調 三三五調가 가장만흔것은 朝鮮歌謠의 普通의 呼吸인 四四 或은 三三五調를 基調로한것을 미루어 生覺할때 이도한 當然한 事實임을알수잇다。

四四調

가튼갑에다홍치마
鷄卵에도有骨이라
功든塔이문허지랴
구르는돌에몸고인다。
끌는국에맛모른다。
누의조코 매조타
木靴신고발등긁기
벌거벗고환도차기
죽은子息나세이기

五五調

못된一家가 항렬만놉다。
국에데인놈이 물보고분다。
공께든배암 기피를흘리라
諺文風月에 雁이잇스랴
今日忠淸道 明日慶尙道
살천에가서 밥달라한다。
변죽을치면 복판이운다。

三三調

꿀먹은 벙어리
쩡먹고 알먹가
꾸어온 빗자루
업질너 절박가
얼는고 빰찬다。

讀者社交室

◆世界獨立國名을下敎하야주시요 金堤郡扶梁面月城里 鄭完讓

◆小生이 李光洙作『그女子의一生』(後篇一冊)을求하오니 有意하신분은無價로讓渡하실先生님이계시면本讀者社交室을通하야알르켜주시오 江原道原州邑內 朴廷根

◆하와이엔까ー타ー獨奏曲 或은 名曲集(舶來品歡迎)을 求하오니 購讀하실분이게시면 下記住所로 書名出版所及賣價를 明記하여通知하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會寧邑一洞二三五 朴順變

◆吳貞鶴氏 只今何處에계신지 住所를알녀주시요 任綱한것은日後에 社交室又는現住所로 通知하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仁川花平里五〇一 李在國

◆朴孝淳 辛弟貢 李廣鎭三兄 只今議洲어느곳에계신지 片紙하여주시오 沐涇所區 安元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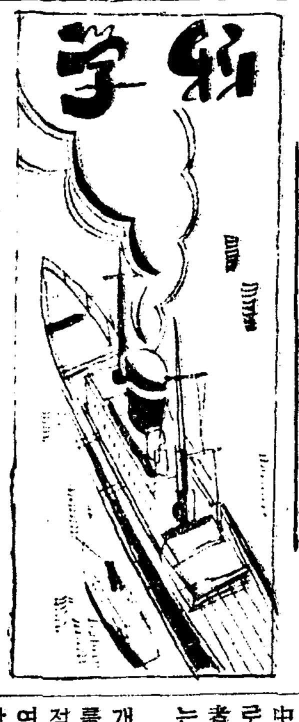
◆登山家諸氏께못습니다 每週一二次式定期로 登山을하는旣成團體가잇거든 所在와 一般會費格其他詳細를 紙面에紹介해주시기를바랍니다 安國洞生

◆家庭敎師로 써주시옵소서! 本人은 高商生徒로 事情에依하야 家庭敎師를 希望하오니 有意하신분은 社交室을 通하야圖하옵나이다 (晩海生)

◆當根兄? 只今어느곳에계신낫가 去年春까지는 片紙消息이잇드니 只今은五六次式 片紙를하여도消息이업스니답답합니다 市內讀者諸氏께서는 李當根이라고 西大門電氣會社에 在職中이엇는데 나이는二十一歲 아시는분이게시면 此社交室을通하여서 알려주시면 퍽感謝하겟습니다 平北 欽

◆五月二十六日付 李敬埔君에게答함 當身은 에스語를研究中이라하온이퍽이나 感謝하나이다 비록에스語歷史는 짧으나 벌이世界各國에서 國際用語其他에서 通으로 使用하고잇습니다 如何間實現性이 濃厚한國際語입니다 參考로日本エスペラント學會에서 發行 하는『エスペラントの本質』(定價參拾五錢)을 一讀하시요 咸南 淳生

◆젊은民謠 詩人崔貴燕氏와 趙一信氏의 住所를알고 싶습니다 讀者諸氏中에서도 아시는분이게시면 社交室欄으로 通知해주소서 (京城府花洞町 金聚貴)



物理學者의警句

金相兆

有名한 政治家나 文學者나 思想家들에게는 一生의 指導精神이라고 할만한 標語가만히잇다 假令『나포레옹』은 自己의 辭典에는 不可能이라는말이 업다고 한게라든지『비ー스마ー크』의『鐵과血이잇슬다름이라』고한것가튼것은 다 그것이다

그러나 흔히 寡默한 物理學者에게는 警句라고 할만한것이 그다지 잇슬것갓지아니하나 그래도 人口에 膾炙되는 警句中에는 比較的 物理學者들의 한말이 만타 예전 이야기를 들추어내면『알키메데스』가 그例의하나로서 지금도 有名한 이야기가 둘이나 남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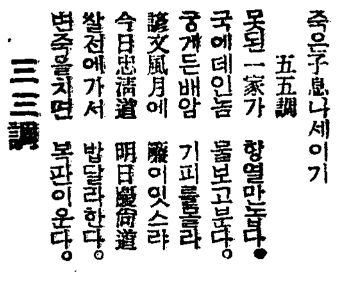
그가(히에로)王으로부터 王冠의 金의 純性에對한 質問을바덧슬때 그理致를 入浴中에서發見하고서 裸體그대로 뛰여나와서 歸途에『發見하엿다 發見하엿다』(Eureka Eureka)라고 부르지젓다고 하는것은 매우 有名한 이야기인것이다。金鑛發見에 因해서 Eureka라고하는 地名이 北米에잇다고도하나 이말은 後代에 여러가지로 引用되엿스니『코난·도일』의 小說가운데도 이말은 매우 재미잇게 引用된 個所가잇다。이 大學者의 逸話는 Vitruvius의 Architect 中에잇는것으로서 早熱히 한개의 傳說에 지나지못한다고 하는사람도 잇스나 그러나『알키메데스』라는 사람은 본래 學者의 天質이라고도 할수잇는 放心의 人物이어서 무엇에든지 熱中하면 寢食까지 이저버리며 재우에다가圖形도 그리고 몸에 기럼을 발을때에도 그기럼으로 幾何學의 圖形을 그렷다고하니 이逸話도 事實일는지모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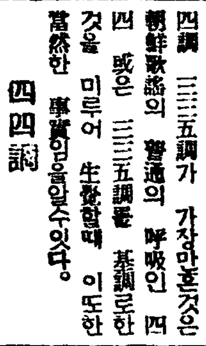
夏目漱石의 有名한小說『나는 고양이다』의 가운데 메ー『알키메데스』ー 장국수에 당ー면이『알키메데스』의 理論에 따라서 국수가 장긴 分量만큼 장국도 부러진다 고하는게引用되엿다。그러나『알키메데스』의 原理는 物體는 水中에서 그排除하는물의 重量만큼 가벼워진다고하엿다。英國百科辭典의『알키메데스』傳에는 浴槽에드러가면 물이 부러넘치는 때문에 그原理에 想到하엿다고하며 佛蘭西의『라루ー스』의 大辭典에는 그가 浴槽中에서 手足을 움죽이니까 空中보담도 가벼운것을 늣겻슴으로 發見하엿다고 씨여잇다、前者는 普通敎科書流의 解釋이고 後者는 漱石流의 解釋이다

그리고『알키메데스』의 또한개의 警句는、나에게 잇슬場所를달라 그러면 나는 地球를 움직일것이다』하는것이다、이말도 여러가지로 解釋되여서 立脚地만주면 무슨일이라도하겟다는意味로解釋되는것이 普通이다。이것은『프르타ー크』의 英雄傳中에『알키메데스』가『히에로』王에게 다른한개의 地球를주면 自己는 거기에가서 이地球를 움켜여보히겟다고한 記事가잇는것이 이警句의 源泉인듯하다、『히에로』王도 놀낫겟지마는 槓杆이나 水壓을 利用하려는것이엿다고하는데 槓杆의理가 처음으로 理論가튼 形體를가추운것은『알키메데스』에依한것이라고하니 이故事도 常人의 大言壯語와는 달을것이다.

『나는 假說을 만들지안는다』(Hypothese Non Fingo)는것은『뉴ー톤』의『프린지피아』中에 잇는 말로서 이것도 잘 引用되는것이다。그러나 그가 光의 微粒說을 提唱한것은 그自身。벌서 假說을 지은것으로서 一種의 自家撞着에 빠진것이라고 할수잇는것이다。그러나 物理學에서 假說이라는것을 完全히 放逐하는것은 不可能하다고 하드래도 그것이 假說과가티 생각될때는 그것을 排除하려고하는 努力이 곳 科學的精神이라고 할수잇슬것이다。

『가리레오』가 宗敎裁判에서『코페르니카스』의 地動說을 抛棄할것을 盟誓할때 蹴坐로부터 러서면서 여물 도라보면서『그래도 움죽인다』(E pur si muove)고 가마히 말하엿다한다。





寫眞上『알키메데스』와 (中)『뉴ー톤』과 (下)『가리레오』

產前產後의養生에!

血液의循環을順調롭게하야姙產婦의몸을保護하는信用잇는婦人藥입니다。

喜谷實母散 (히곡실모산)

母體를守護하라!

이로부터의장마때는姙產婦에게는가장큰障害입니다健康한乳兒를나키爲하여서는당신의몸을健康하게하십시요

이러한분은꼭
產前產後인분
발과허리가차지는분
月經不順으로苦憫하는분
白帶下인분
子宮病으로苦憫하는분
流產早產의念慮잇는분
氣分이나뿌고眩氣잇는분
히스테리ー로苦憫하는분
感氣와頭痛이잇는분

定價

婦人良藥

東京京橋 喜谷市郞右衛門 本店

連載野談

春夢記 (卅六)

申鼎言 作 / 金熊超 畫

고미인의눈물(九)

개루왕께서 먼저 그미인의사나히를 잡어드려 궐하에 꿀린뒤에
『네 죄를 네가 아는가?』
『알외옵기 황공하오나 오죽 황공하옵니다』
『네 계집의 젓은 죄는 적은죄가아니야 그죄는 임검의 존엄을 상한 큰죄야 이것은 모두 네가 가르치지못한 죄이어니 이죄는 네가 맛당히 대신당해야할 큰죄다』
하시고 곳 범관을 불으사 엄숙하신 음성으로
『저죄인을 나라법대로 엄하게 처벌하라!』
하시니 그 진노하신 위엄이추상가트사 사람은커녕 산천초목까지도 떠는듯하얏다.
그 사나히가 범관의 뒤를딸아 나오며
『죽엇다, 죽엇성, 어느놈이 제 계집에게 서방질하라고 가르칠놈이 잇슬가. 그러커늘 못 가르첫단 말슴이 어인말슴이며절개를 직히려는 계집의 서방을 죄인이라하야 나라법대로엄하게 처벌하라시는 말슴은 어인 말슴이고. 나는 몰은다, 어떠케 엄하게 처벌할는지 나는 모른다. 병신을 맨들던지 죽일던지 나는 다모른다. 나를 병신을 맨들거나 죽이거나, 아무짓을 다 할지라도 내 안해의 절개만은 변함이 만무할걸.』
하며 임검을 뭇엇시 크게 원망하얏다.
그런데 범관은 그 사나히를 엿끌고 가서 형구를 갓추 채린뒤에 먼저 두눈을 뺏다.
『에이 징그러!』『에이 찌끗찌끗하게 징그러!』
하며 그 범관은 임검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야 그 사나히를 죄업시 두눈을 빼기는 빼엿스나 그 두눈이 빠진자리가 맛치 큰 굴속갓고 빠진 두눈 알은 멀둥, 멀둥, 흐룸니며 흰자위는 흰대로 검은 자위는 검은대로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그중에도 눈동자는 무엇을 보는듯이 거울속과 가티 빗치는 그형상을 차마 바로보기가 어려워 고개를 외로 돌며 오죽 징그럽다는 소리만 연겁허 부르지젓다.
그러나 그 범관은 또 다시 두눈이 빠진 그 사나히를 잇끌고 송파강(松坡江)에 일으러 널판자쪽에 태워서 그야말로 물결치는대로 바람 부는대로 지향업시 칠렁 흘너가게 띄워버렷다.
『휘ㅎ다!• 두눈이 빠진 장님몸으로 널판자를 타고 만경창파에 뜬 그 사나히!』
여염분 안해를 두엇든것이 죄가되어 생눈이 빠지고 그도 부족하야 돗대도업고 키도업는 널판자쪽에 몸을 실코 만경창파에 떳스니 그 앞길이 장차 어이될것가?
이불상한 사나히를 실훈 널쪼각은 물결이 내려 밀리며화살가티 빠르게 흘너 내려가고 만일 아래여울로 부터 바람이 치불면 그세찬 물결을 거슬려 뒤거름을 친다。
그러나 그사나히는 그널쪼각이 압흐로 흘너가는지 뒤로물러가는지 그 진퇴를 알길이업섯다。
다만 그 널판자쪽에 물결이 부되처 몸이 저즐때 마다 그래도 그것을 피하량으로 외편으로 외손을 벌니고 다른곳을 차즈려고 떠둥으며 몸을 틀때에는 그 널쪼각이 외편으로기우러지며 하마 하마 외편으로 빠지게되고 올흔편으로 올흔손을 벌니고 어느 의지할곳을차즈려고 떠둥으며 몸을 틀때에는 그 널쪼각이 또한 오른편으로 기우러지며 하마 하마 올흔편으로 빠지게되든다。
이와가티 그 불상한 사나히는 좌우로 기우뚱거리며 작고만 흘러내려간다。
원래 백제나라의 국법에 임검을 속인 죄인은 그것을 딸하서 죽이든지 그러치아니하면 눈이나 코를 베혀 병신을 맨들어서 임검속인 죄인이엿든 표적을 영원히 나라내는법이잇섯다。
그런데 그사나히를 눈을빼고 물에 띄인것은 물론 죽으라는 뜻이엿스니 미인의 남편된죄가 어이그리 중하얏든가를 탄식하게되엿다
이때 개루왕께서는 그 사나히를 눈을 빼어 물에 띄운뒤에 그 미인을 마저 불너 아페 세우섯다。

當代의傾國佳人 濟州妓生 金萬德

申鼎言

時代는 李朝正宗十九年頃. 濟州妓萬德은 元來良家女金氏다. 幼時에 親冊를死別하고 隣洞某總角과結婚하야 治家케되엇다. 그總角은 半不具者이나 萬德은事父、事夫의兩誠이 如一하얏다. 그런데 그親父가亦是死亡. 父死後不久하야 그夫亦死亡. 萬德은可謂無依無托. 然이나 空家苦節을 自守하든바 意外家內에 怪變이 每夜頻頻하야 膽大男兒로도 難當이어늘 況且年少女性乎아. 不得已隣家某妓生家에 依托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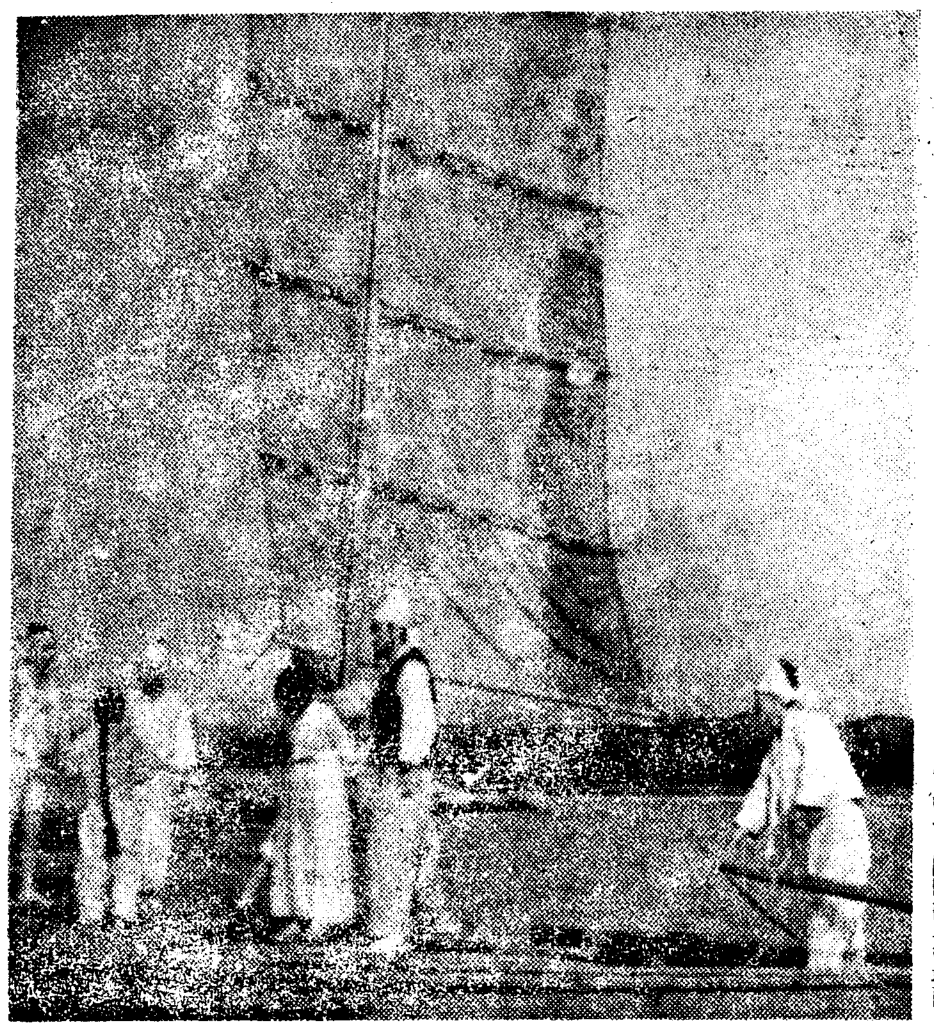
元來朝鮮妓生의制度는 或者新羅眞興王時代에 源花라는것이잇스니 이것이朝鮮最初의 妓生이라하나 實은이源花는 妓生이아니오 一種儼然한社交團體이엇다 그런데 高麗太祖王氏가 統一建國한後 楊水尺의徒黨中美女로써 女樂의任을當케한바 이것이分明朝鮮妓生의起元이되엇다. 그러데 自高麗太祖爾來 凡千有餘年間妓生의制度가 繼續되엇든바 一般社會는 彼等을花柳界女性이라하야 賤待가極하얏다. 그러나 個中에는 오히려 良家淑女의 不及할美德과 特히才色이 許多하얏스니 即詩妓、醫妓、節妓、義妓、孝妓、智妓等이잇는바 그歌舞는勿論이다. 그뿐아니라 그地方을딸아 또한 特色이自在하니 例하면
(一) 安東妓는 善誦大學(소一)
(二) 關東妓는 善唱關東別曲
(三) 永興妓는 善唱龍飛御天歌. (四)濟州妓는 善騎馬(五)義州妓는 善騎馬劍舞 (六)平壤妓는善唱關山戎馬詩. (七)北靑妓는善馳馬, (八)咸興妓는善誦出師表.
이와가티 各各特色이잇다. 何如間妓生의 品技가 今日보다優越하얏든것은 事實이다.

그런데 이金萬德은 妓家에依托하얏다가 畢竟妓籍에入名이되엿다。그러나 天性으로 不肯하야 願妓官時에 脫妓를 歎願하야 許妓가되엿다。

萬德은 在妓中에도 二大決心이잇스니 (一)濟州男兒가아니면 決코 許身치아니할것。(二)濟州男兒가아니면 二者中에는 自己와心合하지 아니하면 亦是許身치아니할것等이다 그리하야 代代濟州牧使가 侍枕케하얏스나 無條件智巧謀로써避하야 그貞操를不失하얏다
그런데 正宗王十九年濟州島가 大旱災로 罹災民이 不知其數이엿는데 朝廷에서 救濟에 努力하나 海陸千餘里에 猶有未及의 歎이잇섯든바 이에萬德이 私財를 傾하야救急하얏다。王께서聞之大嘉하사 그所願을 聞하시매 (一)宮殿拜觀 (二)金剛山求景이 엇슴으로 그所願이또한 意外인 것에 大嘉하얏다。그리하야 當時蔡宰相의 斡旋으로 二個所願을 遂케하얏다。
그後金萬德은 許多高官이 同居를請하얏스나 不應하고 故鄉인 濟州島로 歸還하야 削髮爲僧하얏든바 그後跡은未知이다
何如間 金萬德은下鄉賤妓로서 個人으로는 節婦의美行。社會的으로는 慈善의美德을 遂行한것이 稀罕한事實이라 云謂치아니치못할것이다
故로 그略歷神話를 一說하는것이 當時花柳界는 勿論 一般墮落의 女性에對한 範이 될줄을 信함

『劉忠烈傳』 府民館에서上映中

朝鮮聲樂研究會에서 連鎖唱劇「劉忠烈傳」을 撮影中에 잇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 이미 그撮影이끗이나서 지난六日부터 連四日(每日下午七時半)市內府民館에서上映中인바 同連鎖唱劇에는 朝鮮傳來의 聲樂家로서 至寶로칠만한 宋萬甲 李東伯兩氏를 爲始하야 丁貞烈 金昌龍 沈相健 吳太石等斯界의 權威들이 總出演하는만콤 開演第一夜로부터 滿都의人氣가 沸騰되엇다。劉忠烈傳은 이미 周知하는바와가티 古代小說中에도 가장만히 閭巷間에 流布되엇이어니와 거긔다가 朝鮮聲樂研究會에서는 새로운唱을 맨들어너허서 春香傳이나 沈淸傳과가티 꾸미어 노흔것으로서 그點만으로도 一般의 巨大한 企待를 가지게하는바이 업지안타。이映畵에出演하는 重要人物은
忠烈 丁貞烈
忠烈夫人 李桂仙
정한담 姜太弘
최일귀 趙相鮮
忠烈父 吳太石
忠烈丈人 李東石
그外에 唱으로나오시는분은 宋萬甲 李東伯 丁貞烈 金昌龍



寫眞은 同映畵의한場面

立體漫談 뜬世上風景

黃材景

오늘날世上을 흔히 말하기는 文明한世上이라 華麗한世上이라 奔走한世上이라고 모두이러지만은 나는 뜬世上이라고 이름을부처 노앗습니다 그야太陽을 中心으로하고 春夏秋冬으로 虛空에떠서 도라가는地球가 우리사는世上이니만치 누가 뜬줄모르겟느냐고할런지몰라도 그것도 뜬것은뜬것이지만 그런意味는 아니올시다 그러면홀치한늘에 구름이뜨고 空中에새가뜨고 飛行機나 잔자리가 數업시 떳스니까 뜬世上이라고 하느냐고 할런지몰라도 그亦是 뜨기는떳지만 내가말하려는 뜬世上이라는 意味는 아주다르게 解釋을하엿기때문에 地球가 四分之三이 물이오 四分之一이陸地라고해서 땅이물에떳느냐? 물이땅에떳느냐 하는것을 말하자는것보다도 좀哲學的意味로서 본世上을 말하야日 뜬世上이라해놋코 생각나는대로 눈으로보고 귀로드른대로 멧가지 風景만을 되는대로 그려보려구합니다

(一) 돈에뜬世上 萬物의靈長이라고할만한人間들이 돈때문에 목숨까지犧牲을當하면서라두 그래두 돈, 밤낫『도로아미타불』로反覆하것만 婚姻을하재두 먼저돈부터보는世上,

(二) 薄情에뜬世上 夫婦間의 薄情으로보든지 시어머니 며느리사이의 薄情한것은 날이갈사록甚해가니 이분들게는 개와잣나비라도情답게지내는 曲馬團시바이(芝居)래두 좀 求景 해보시라구 하구십허요,

(三) 慾心에뜬世上 慾心업는 사람이 어듸잇사오릿가만은 가진慾心을다부리다가 배가불으면 億萬年이라두 長壽하겟다는慾心을부리는사람이 過去에두만어구 지금에두 만치만 녯날 朴첨지 가튼사람은 업슬까봅니다!

(四) 사랑에뜬世上 사랑의新世界를向하야 大成功을하엿다고 웨치며 戀愛長驅로 단꿈을꾸든 사람의 어머니는 아들을찾다가 얼어죽엇다는 니야기를 들어보섯습니가?

(五) 술에뜬世上 어떤男便이 너머술만먹기때문에그안해가 懇曲히哀願을하엿드니 男便曰『내가 두가지境遇外에는 안먹기로 盟誓를하네』안해曰『아이구깁버라 그러케만하신대도 우리 살림이야 얼마나幸福스럽게될런지 모르겟서요 그런데 두가지境遇라니 어떤境遇?』男便曰『저! 비오는날과 비안오는날 이두경우』이만첨 世上은 술에떳습니다

(六) 재먹에 뜬世上 相對者不景氣時代에處한 美人諸君들이 제아모리鏡台아페서 舞台出演의表情을練習하면서 멋을부리지만! 冒險家될사람은 업는가봐요!

(七) 興에뜨고 求景에뜬世上 興에떠서 춤추는아저씨 바지춤을 거더올리소서 長安의 求景꾼들 『벤또』차가지고 모혀든답니다 歲月은 흘러가고 人生은늙어 가것만 世上은 九萬里長空으로 떠다로며가고 나는내멋에 떳스니 不可不 뜬世上이라할수밧게…

라듸오

十日(水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王子와惡魔』一景 百合어린이會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 運動과競技 李仁圭
◇同八時 記念講演 時의記念日에對하야 京城府社會課長 金永祥
◇同八時三〇 伽倻琴倂唱 一、短歌 靑春夢 二、唱劇調興夫歌 李素香 鼓手 韓成俊
◇同九時 男聲四重唱 延專四重唱團 一、행거운人生……딱스編曲 二、물네방아……에슈포드作曲 三、산양노래……딱스作曲 四、들장미……딱스作曲 五、南方의멜로듸…포스터作曲
◇同九時三〇分 第一레너 李仁範 第二레너 毛麒允 第一바ㅣ스 金道集 第二바ㅣ스 尹弘基 피아노伴奏 A、L벡커 一、오조 二、뒷연을 河龍南 金壽男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 이야기 宮地政司 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二〇分 日滿交換放送
◇同八時 (東)피아노獨奏 平野미도리
◇同八時一〇時 (大)獨唱과合唱 獨唱 武岡鶴代 合唱 大阪放送合唱團
◇同八時二七分 (東)立體漫談 藤原釜足外
◇同八時五〇分 (東)箏曲 山勢松韻外
◇同九時五分 (東)長唄 芳村伊四郎

十一日(木曜)

◇午後〇時五分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船遊歌 三、遊山歌 四、제비가 孫張香蘭 孫瓊蘭
◇同三時一四分 衛生講演『疾病과營養과의關係』 世專病院 趙東秀
◇同四時三十分 野球試合 實況『鐵道對全大宮』 龍山그라운드에서ー
◇同六時三十分 話方指導(敎育레코ー드倂用)(一) 延專敎授 鄭寅燮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科學講演『海中植物』 培花女高 李德鳳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一) 崔南善
◇同八時三十分 (東)室內樂
◇同八時一〇分 誦書와詠詩 一、心性圖 二、長篇 林炳駿
◇同九時五分 孤獨의怨恨外 一、孤獨의怨恨 二、간간이打鈴 三、제겨歌 四、春踊歌 五、悠悠別恨 短簫 曹松成 細笛 高載德
◇同九時三〇分 映畵物語『鄕愁』 柳寅晟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分 (東)家庭講座
◇午後〇時〇五分 (東)라듸오•멜로듸 무란•루주
◇同二時 家庭講座 犬山喜一
◇同六時 新日本音樂 西村瑞琴社一行
◇同七時三〇分 講演 國富信一
◇同八時 (東)日蝕
◇同八時三〇分 (東)淸元 淸元壽美太夫外
◇同八時五〇分 (大)浪花節 鈴木書娥之 廣澤虎造

十二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 春香歌中 春香母懷보고비는데 綸素玉 鼓手 丁元燮
◇同三時一五分 婦人週間『女性과職業』 同德女高 宋今璇
◇同六時三〇分 話方指導(敎育레코ー드倂用)(二) 延專敎授 鄭寅燮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 〃船舶이야기〃 中央高普 沈亨弼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寧邊歌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긴아리 七、경복궁타령 崔貞子 金秋月
◇同八時五〇分 洞簫獨奏 가、散調 나、새타령 柳東初 鼓手 池龍九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桂貞植 一、바이올린과管絃樂 바이올린•소나타 西班牙交響曲 D短調……랄로作曲

第一放送
管絃樂•위ー니밀하ー모니 指揮
◇午後〇時五分 (大)로ー키物語 木田牧童
◇同〇時三五分 (東)詩吟 (사랑의나포리)
◇同六時 (廣)鄕土童謠의노래 大麻博之 鹿兒島川邊郡加世田
◇同六時二五分 (東)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東)講演 松井茂
◇同八時 (大)寄席中繼 花柳쓰바메外
◇同九時 (東)講談 神田山陽

★曆★

六月十一日(木) 陰曆四月小 (廿二日)
甲子•金•奎•破
●小滿二十一日(陰初一日)
●芒種六日(陰十七日)

演藝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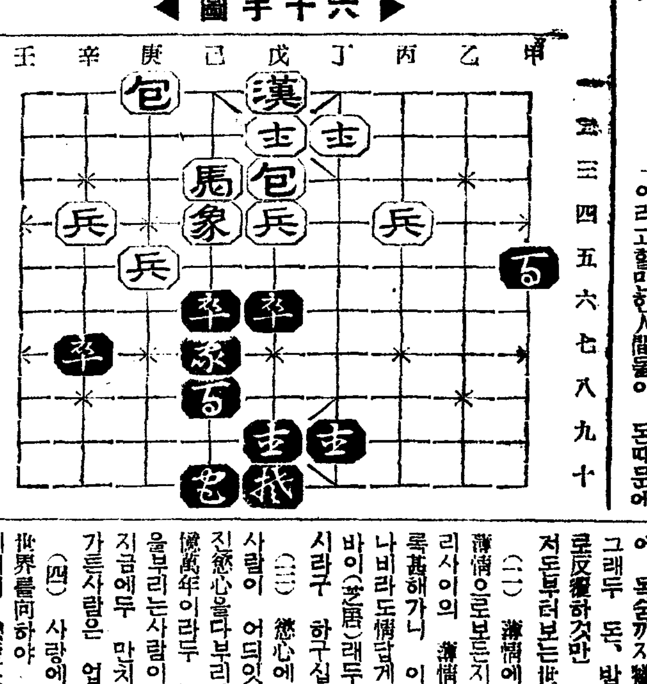
平間文壽氏 演奏會開催

來十二日 午後七時半 市內府民館에서 中央藝術社 主催와 平間文壽門下生會 後援으로 平間文壽、井上케이子大演奏會開催하기로 하얏다。

將棋名手對局譜 (七)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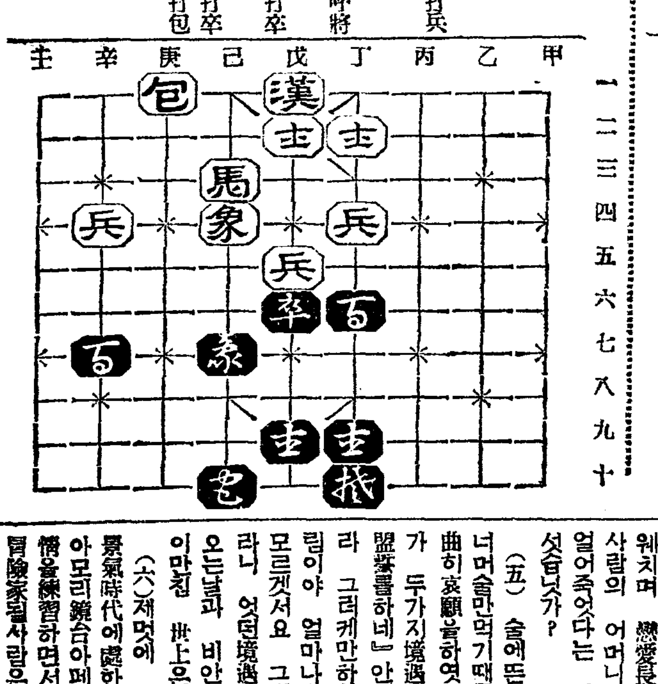
漢 李在鳳 / 楚 先手 全于石

◀圖手十六▶



◀圖手十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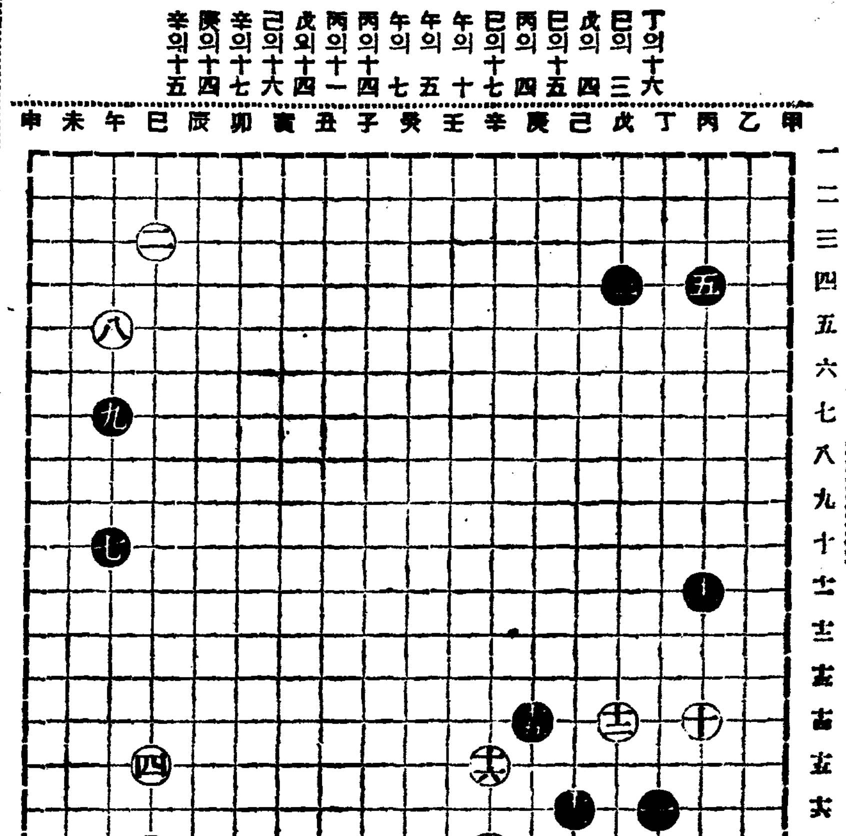
甲五(包)ー丙四打兵
戊四兵ー丁四
丙四(包)ー丁六
戊三包ー戊七呼將
戊十(將)ー丁十
戊七包ー辛七打卒
己六(卒)ー己五
庚五兵ー己五打卒
己八(包)ー辛七打包
己五兵ー戊五



圍碁對局譜 =1= 本社主催

白 柳鎭河 / 黑先 丁奎春

●一 丁의十六
○二 巳의三
●三 戊의四
○四 巳의十五
●五 丙의四
○六 巳의十七
●七 午의十
○八 午의五
●九 午의七
○十 丙의十四
●十一 丙의十一
○十二 戊의十四
●十三 己의十六
○十四 辛의十七
●十五 庚의十四
○十六 辛의十五



蔡極文氏評日

此局는 當局善手의 藝術的試合이요 棋界에 供獻될만한 棋譜資料로 自度하노라 黑戊의四 丙의四와 白巳의十五、十七은 對應比較로 看做되고 黑丁의十六 丙의十一과 白丙의十四 辛의十七은 盡例用點이므로 別無議論이나 來頭造次如何에 當有甘蔗之境을 豫想하노라

산뜻하게녹아드러살결을養生하는
マスターバニシングクリーム
마스타ー크림

美의 基本的福音
마스타ー바니싱에 配合한 基本美肌劑라세랑은 皮膚細胞에 浸透가 迅速하야 榮養을 普及하고 活力을 賦興하야 老廢物을 排泄하는作用이 强하므로 ▲皮脂腺의 機能을 調整하고 ▲皮膚의 彈力化等을 完全히 行하야 살결을健康하고 美白하게합니다

有害菌이 살결에侵入!
面刀後의 살결을 顯微鏡으로보면 참으로 놀래리만치 皮膚의 凸凹面에 흠이 잇서서 무서운 細菌이 살결로浸入하는 絶好의찬스가되므로 面刀後에는 꼭 基本美肌劑라세랑配合의 마스타ー바니싱으로 有害菌의 侵入口를막어서 彈力잇는 살결을 保持하십시요

きつと美しくなれます クリーム独ツ占め

安心할수잇는 크림
바니싱크림을 손바닥에발라부비면 잘퍼저 업는 크림이잇습니다 그러한 크림도 얼굴에발르면 잘 퍼지는것가티 생각되는것은 크림의 液分만이 分離하야 퍼지는것가튼데로서 主要한크림分은 얼굴一部에 두텁게 부터잇습니다 이것은 大概乳化의 不適當한結果에 만흔現象으로
▲크림의 濃淡이잇게 발리는故로 化粧下의 濃淡에는 보기실흔濃淡이생깁니다
▲皮膚面의 一部分을 크림이 두텁게덥게 때문에 分泌物의 新陳代謝를 妨害하야 뾰드름•부름이 생기기쉽습니다

美白한살결을맨드는優秀한크림
優秀한 바니싱은 먼저 산뜻한感이 잇고 손에발라 부벼보면 잘 퍼집니다 이것은 가장 適當한 乳化狀態로 되여잇는 크림의 特徵입니다 바니싱의 第一等品專賣特許 마스타ー바니싱은 香粧品化學의 權威 西澤理學博士의 苦心으로 살결에 가장適當한 乳化狀態로만드러 滲透力•榮養補給等이 斷然 優秀하야 皮膚面에 엷고 均等하게 퍼지는故로 化粧이 더욱잘되고 여드름 부름等을 막아서 美白의 살결을만드는性能 優秀한 바니싱입니다 그런데偉大한 特徵으로서 獨逸特許의 基本美肌劑스킨호르몬性라세랑이라는 美의 基本的要素이되는 美肌劑를 配合하엿습니다

『自由의天地』 松竹大船 オールトーキー 淸水宏監督 桑野通子主演 近日完成

全郡人口十六萬中 細窮民六萬五千名
其中絕糧者만도二萬六千餘
井邑郡民의春窮其極

【井邑】 토지의 경제파 자작농의 전락 저빈자의격증을 따라류리걸식할 곳조차업서서 고향을등지고 남부여대하야 북쪽나라로 떨려떠나가는 행진군의 비애는 유독 전하조선농촌이 가지고잇는 특징이라하지만 그중에도정읍이 더심한감이잇다 군민총호수삼만구백이십사호에 인구십륙만사천오백이십인중 세민총수가 구천구백칠십삼호에 사만사천이백륙십구인이며 절량궁민호수 오천팔백사십사호와 이만사천구백일인이며 류리걸식자가 일천구백삼십륙인이라는데 세궁민과 절식자를 합하면 칠만구십팔인이라한다 전군민 십륙만에 비하면 전군민의 약반수에 달하는 현상이라하야 일반유민은 위정당국자의 적당한구제책이 잇기를바란다한다

平南道高等課에 外事係를新設

【平壤】 신임한 경판(井坂)평남도경찰부장은 부임후 관계각과장에게서 관내의 상황을 청취한바잇섯는데 사상경찰(警察)과 외사과(外事課)의 설치의 필요를 늣기엇다 그런데 사상경찰의 확충도 화중이지만은 평양은 군사상관계도 깁흔터이므로 외사과를 급속히 설치하기로 태도를 결정햇는데 이것이 실시되면 외사과를 설치하지는 못하나 현재의 고등과의 외사계(外事係)라는 동급과관을 위선 설치하게될터이라한다.

洞民의補助로 長德私塾曙光

【江東】 전조선방방곡곡에서입학난을 늣기고잇슴은 다시중언할여지가 업지만은 강동군신리면장덕리(江東郡新里面長德里)에서는 지금부터사오년전에 동리유지제씨의 열성으로 개량서숙(改良書塾)을 설립하여 현재아동오십여명을 수용하고잇다 이장덕사숙에도 입학지원 아동이 년부년증가되여 금년봄지원아동수도 일백이삼십명에 달하엿스나 교실이 협착하여 부득이현재수용아동수만을 입학시키엇다한다 그경영을본 동민들은 주문진부담그역인 삼교리도로수선을 청부하여 그공동로임(共同勞賃)금일백오십원을 긔증하는동시에 동리유지최찬대(崔燦大)씨는 이긔회를 리용하여 동교실이간을 증축케하고 그나머지부족액은 설립자정계태(鄭桂泰)씨와 구장최찬승(崔燦升)씨의 협력으로 불일간완성하리라는바 일반은 그의미거에 칭송이자자하다한다

三百萬圓遺產싸고 兄弟間에訴訟질
次子가四十四萬圓分財請求
咸州富豪韓氏의爭訟

【咸興】 조선적으로 유수한부호 고한시은(韓是殷)씨의 유산삼백만원을차고서 아들형제간에 싸홈이생겨 소송사태까지 이르키게된 주목을끌고잇는 사건이잇다— 함주군주북면기양리(咸州郡州北面岐陽里) 한덕곤(韓德坤)(ㅁ)은 그의형 함흥부함흥정어정록 팔오구번지 고한시은씨의 장자한유곤(韓裕坤)(ㅁ)을 상대로 일백사십사만륙천오백사십삼원십전의 상속재산분배 청구소송(相續財產分配請求)을 제출하엿다

청구한리유를보면 원고는 고한시은의 차자로서 지난십년십이월팔일 한시은이가 사망한후 그유산개략 삼백만원중 삼분의일은 당연히 원고에게 상속분배하야주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약십여년전에 한시은을 상대로 장자확인소송(長子確認)을 제기하얏다 당시 한분외 재산분배도업시 분가(分家)하엿슴으로 이번잔산 삼백만원부상속자 한유곤(韓裕坤)에게만 전부상속하엿다 원고의 재산은한시은(韓是殷)이가 생전에 전부 그의가족의 명의로 신탁하여주엇스며 방금 한유곤(韓裕坤)명의와 상속바든것이 부동산(不動產)이 사십만원 예금채권들도 합일백사십삼만구천팔백이십일원 십전임으로 위선 그의 삼분의 일만 청구하는것이라고한다

全朝鮮個人庭球
叅加九個校에三十組로
十三日正午로迫到

【平壤】 숭실전문학교 정구부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십三일 정오부터 부내신양리(新陽里)숭전코ー트(崇專球場)에서 개최되는 제이회 전조선중등학교개인정구대회는 각일의절박함을따라 주최자측에서는 준비에밥부다

참가학교는 의주농업(義州農業)소화공로 작년도 우승교 선천신성(宣川信聖)안주농업(安州農業)재령명신(載寧明信)평양고보(平壤高普)광성고보(光成高普)숭인상업(崇仁商業)평양농업(平壤農業)등 구개교의 삼십조에달하여 대성황을예상키에 넉넉하다 대회임원은 다음과가티결정되엿다

會長辛義理 副會長李勳求 總務金浩權 本部委員羅頭德 朴永哲 朴鼓衍 明在億 李根合 金善明 金浩權 審判部金浩植 金顯鳳 車在鎰 姜晉求 金基灝 吳信健 鄭元錫 洪承杰 外本校選手 接賓部明在億 金善明 郭聖煥 金化德 崔應晔 記錄部李根合 金晩炯 朴根善 鄭敬德 李昌植 車祥彬 設備部朴永哲 朴奉守 郭聖煥 金化德 金慶守 金賢錫 醫護部劉基元 金應照 沈鎭烈 金永根

在奉初等學校巡禮記 【八】
撫軍屯普校篇
設立歷史짜르니만치 先生한분、生徒二十名
補助안밧는것이特色이라할가

『둥근달 밝은밤에 바닷가에는 엄마를 차즈려고 우는물새가 南쪽나라 먼고향 그리울때에 느려진 나래까지 저저잇고나』

이런 童心에찬 어린이들의 노래소리가 흘려나오는 撫軍屯普校를 차저드니 뒷뜰에서 女先生님한분이 二十名이나되는 어린이들을 둘러세우고 遊戲가르치시기에 밧부다 遊戲에 몰두된 記者는 마치 仙境에나 드러선感이잇다 어린天使들이 고사리가튼 손으로 南쪽하늘을 가르치며『南쪽나라 먼故鄕그리울때에』라는 노래가 새입가튼 그들의입으로 흘려나올때에 記者도 南쪽나라 내고향이 그리움을 禁할길이업다 뛰어고 깨끗한 어린마음에 南國의 내고향이 그얼마나 그리우랴! 이들어린이가운대는 일즉본적도업는 祖國의하늘을 바라볼때마다 연연한마음을금할길이 바이업슬것이다 遊戲가 끗나고 女先生님은 반가운낫으로 記者를 室內로案內하신다 室內라야 事務室이라고 할것이업고 敎室한間뿐이다

이學校는 今年四月十日에創立되엿다、이撫軍屯이란 地方은奉天에서 十里假量西便으로떠러저잇는 工場地帶이다 住民全部가 工場에서 職工生活을한다고한다 生活이말할수업시 貧弱한그들의 經營하는學校인만큼 敎室의設備라든가 內容이相干貧弱하지아니하다 今年에 開校하야 겨우生徒라고는 一學年一學級二十名밧게안되는데 女子十六名 男子四名이다 名譽校長全應善氏가 잇슬뿐 先生님이라고 女先生林仙航孃한분이다、이學校는 다른學校에서 밧고잇는 總督府와居留民會의所謂補助라는 惠擇도 밧지못하고 獨行千里格으로 物質의苦難과 싸워가는 學校이다 有志靑年朴允浩氏外몃분이 이學校의기둥(柱)을 안고서 밧드러가는 細音이다 學校의經常費는五百圓을 計上하얏는데 그조차도 辦出할길이 至難하다고한다 우리同胞가 허러진 南北滿洲에 어대를勿論하고 잇스리요만 撫軍屯처럼 貧窮한곳은 업슬것이다 事實에잇서서 撫軍屯에잇는 同胞들의 實力으로는 學校經營이란 넘우나 엄청난일이라고 아니할수업다 우에도말한바 一百三十餘戶가 한집도 오늘의糧食걱정업시 사라가는이가업다 그런가운데서도 有志靑年들이 힘을모아서 精誠으로 짜아노흔것이다 이와가티 熱로뭉키고 誠으로자아진 撫軍屯普校는 압날의 前途에曙光이잇슬것을 밋는바이다

林仙航先生亦是 어엽부고 男子에게까지지안흘 快活하신이요 勤儉하신분이다 비가오거나 눈이나리거나 自宅에서 十里나되는먼곳을 헤아리지안코 한때도늣게 出勤하시는일이업다고 洞里靑年들이 말하야준다 敎育機關即 普通學校에 女敎員한분만이잇는 學校는 이撫軍屯普校뿐일것이다 記者가보기에도 씁씁한感이 잇서『단한분이여서 매우외롭우시겟습니다』하니 林先生님은 수엽은 얼골을들면서『외롭다는것은 多少間이라도 閑暇함을 말하는것이되겟지요 創設期에잇는學校에 일에머리를 쓰게됨으로 아직씁씁하다고 늣겨 본일이업습니다 저는敎授에對한 經驗이업스니만큼 老熟한어른이한분게시면 爲先저부터 좀배워서어린이들을 가르켯스면 하는생각은 각금가지게됩니다』라고 말씀하신다『미안 하지만 學校의 寫眞이 必要하오니 寫眞班과가티박잇스니 한장찍도록하야주시요』하니 快活하게 웃으시면서『學校도이와가티 보잘것업는 中國人家屋을 두어간 寫眞을찍어 무엇합니까 아프로 校舍나잘짓고 寫眞을찍을만한 機會가다처오도록 기다립시다』하시는 말슴도 듯지안코 記者는 無理한請을대여서 겨우 林先生과 生徒一同을 카메라속에 너허가지고 校門을 나서니 문압에 바로關東軍軒營砲兵隊飛行場이여서 操縱機가 記者의머라를 스칠듯이지나간다

◇奉天支局 一記者

◇寫眞…林仙航先生과生徒一同

慶北道內小作爭議 千四百餘件突發
今年一月부터今月初까지에
其中調停은不過六割

【大邱】 대구지방법원 관내에서 금년일월일부터 금월초일까지 소작쟁의 발생건수를보면 일천사백칠십오건중에 대구(大邱)가 팔백이건 김천(金泉)이백륙십사건 안동(安東)구십륙건 상주(尙州)일백오십팔건 경주(慶州)일백오십오건인바 조정건수는 약륙할정도라한다

有志의活動으로 佳京夜學復活

【京都】 경도시하경구 길상원(吉祥院)동해도본선(東海道本線)남쪽에 삼십여호의 이주동포가 살어 학령아동도 적지안흐나 대개는 여러가지곤란으로 취학지못하고 잇는형편이므로 동인들이 이를유감히여겨 작년오월에 일처단체로 백여명을 수용할수잇는 교사를 신축하고 정명부인회(貞明婦人會)、가경청년단(佳京靑年團)동정위생조합등 삼단체의 원조와 리홍식(李洪植)씨의 허생적교편으로 이래무난히 경영유지하야오든바 금년봄사월에 이르러 재정난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경영자간에 내홍(內訌)까지 생겨 그나마 부득이 휴교하게 되여 동방면에 우리무산아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이든만큼 뜻잇는 사람의개탄과 일반의여론이 자못동든바 지난오월하순에 동리위생조합과 유지조우식(趙宇植)씨의 삼씨의활동으로 다시개교케되엿는데 일반의기대는 자못크다고한다

愛妻病고친다고 行人을誘引殺害
犯行後몃달만에畢竟發覺되여
犯人은警察에逮捕

【咸興】 간질병의애처를나케하려고사람고기를베여먹인 악착한범죄ー문천군운림면양동리(文川郡雲林面楊嶝里)산중에서지난이십구일 신체가전부썩어버린참살체가 발견되엿는데 소관경찰서에서는 확실이타살이라고하야 이래비밀리에 그범인을엄탐중이든바 그후수사에따라 참살체는 동면회복리(會福里)차룡기(車龍基)(ㅁ)로판명되엿스며 더욱범인수사를계속하든중 지난류월일일 용의자로 동리김용백(金龍白)(ㅁ)을 인치하야취조하엿든바 드듸여 그의입으로 다음과가튼 소름이끼치는 범행을자백하얏다ー범인의처전씨(全氏)(ㅁ)는 수년전부터 전간(癲癇)병으로 고생하얏는데 이리저리약을구하다가 우연히인육(人肉)을먹으면은낫는다는 말을듯고서 어떤회든지 그것을어들것을 생각하고잇다가 지난삼월팔일오후여섯시쯤되어 동리압흘지내가는 피해자 차용긔(車龍基)를 유인하야 산중에데리고가서 큰돌맹이로 때려죽인후 눈알(眼球)과볼살(頰)을베여 애처에게 먹엿다는것이다

不發爆彈爆發로 坑夫二名重傷

【新義州】 지난 칠일 오후일곱시 벽동군 우시면 남서리(碧潼郡雲時面南西里) 방응산(茂鑛山)광구부근에 폭발되지안흔『남포』한개가 남어잇다가 돌연폭발하야 현장에서 일하고잇든 광부 리경진(李京鎭) 강순민(姜順民) 김영락(金永洛)등 세명은 머리와 얼골에 각각 치료 일개월간의 중상을 입어 목하치료중이라한다

安岳

▲時日 六月廿一、廿二兩日間每午前十時
▲場所 安岳公設運動場

全朝鮮男女自轉車大會

◇主催 安岳輪業親睦會 朝鮮日報安岳支局
◇後援 安岳體育協會

青鶴寺이全燒
小金剛八景의一
一千餘年歷史의新羅古刹

【注文津】 지난륙월칠일밤에 강원도강릉군연곡면소금강산(連谷面小金剛山)에잇는 신라법흥왕(新羅法興王)시대의 고찰인청학사(靑鶴寺)가 전소되엿는데 소금강팔경의 한자리를가진 청유여연의 긔록사도 일조에 황락한폐허의 꿈만남겨노앗슬뿐이다 그리하야 소금강탐승객의 한숨만 깁게수거할따름이라한다

地方人事

▲金正中氏(下碣金融組合理事)新任人事次 本報長津支局來訪
▲李康烈氏(慶安面長)新任人事次 本報廣州支局來訪
▲朴瑾熙氏(草月面長)同上

鷄冠蚊香 奏效如神
鷄冠蚊香의絕大한信用은 實로그效力에잇습니다
모기향을사실때에는불이오래타고효력이 제일조흔『계관모기향』이라고차즈십시오
大阪 大日本除虫菊株式會社

金銀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館洞 電話一三一四番 振替 (ヘイゼ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蔘茸五淋錠 淋疾
朝鮮靈藥研究所 咸興府大和町三丁目 振替京城二三四六六番

補精强壯劑
眞品海狗腎
樺太廳官營으로捕獲、同水産物檢查所에서嚴正檢查證明한
說明書請求하시면即時보내드리겟습니다
釜山府幸町三ノ三二三 大洋貿易社 電話二二一九 振替釜山七九二二

大奉仕特賣 御愛用家景品附
イカリ ソース
今期間中 이까리소ー쓰 二合瓶한개를사시는분마다 實用 유리 小皿 한個式빠짐업시進呈
速히下命하시옵기를!

頭痛이잘낫는名藥
ノーシン 노ー신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獎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눌로 쑤시는것가티 골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호릿터분할때나 술을過飲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 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地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 노ー신과 비슷한 藥品이 만히나와사오니 잘보시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 商標帽子印잇는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名古屋市東區東二丁目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3 三五
六月九日봇터三日間大公開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畫 洪吉童傳 後篇 李銘牛監督作品 朝鮮語全發聲日本版
李慶善、李錦龍、李鍾哲、羅雄、金寅圭 主演
◆伊太利A·O、!超特作映畫 面影
◆佛國토비스社超特作映畫 G·W、파부스트監督作品 上에서下까지

團成社 映畫殿堂
六月九日부터大公開
大爆笑劇 로이드의牛乳屋
◇P·C·L超特作全發聲日本版 都會의怪異七時〇三分
西部大活 싸호는幌馬車

桃花劇場

第一劇場
高田稔氏 虎狼の巷

朝鮮劇場 仁寺町
로이드의亂鬪王
바ー바리·코ー스트
國際盜賊호텔

"米穀統制目標" 專賣制로落着?

◎申泰翊

로써 事實上에 있어서 米價調節이 完全히 解決을 보게되기 어렵다는點이 잇는바 그에對한 論爭가 어떠 잇느냐고하면 다음과 가튼 事情을 든다

지금까지 米穀統制의目標가 되어오는 米穀統制에對한問題가 어느程度까지 可能케될것이며 따라서 米價를 安定케 하는效果가 잇슬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는 그需給關係와 米價의安定을 떠나서 새로운米穀問題가 생기게될 不安觀의諸點이 잇슬것을 念頭에 안둘수가 업다.

×

(가)政府가 米穀專賣를 한다고하여서 米生産을 政府의 自體가 直接으로 한다는말이 아니다 이것은 民間生産의 米穀을 政府가 一定한價格에 依하야 사드리는것과 가티 米穀賣買에 잇서도 民間의生産米를 公定價格에 依하야 買入하여 가지고 이것을 다시 米消費者에게 亦是公定한 價格에 依하야 賣却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考慮할수업는點이 잇다 이로써 需給調節과 米價安定을 보게된다고 하드래도 그結果 새로운問題가 생긴다 即 政府의公定價格을 中心으로한 生産者와消費者의 利害가 相反될念慮가 만흔만큼 그調和의點에 잇서 먼저 疑問을 안가질수업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專賣制에 안이든 이때에잇서는 米生産者를 될수잇는대로 적게드리며 利用하야가지고 그生産費以上 노픈가에 팔게되도록 農家는 힘을 쓰는이다 그러나 만약 專賣制로 된다고하면 이때에 잇서서는 以上과가티 生産者를 적게 드리라는 必要를 農家는 到底히 늣기지안케되는 結果 이를 念慮가만타 왜 그러냐고 하면 政府에서 生産者로부터 米賣上을 하는價格은 그生産費以上으로 될것임으로 政府에는 生産費低下에對한 熱誠이 減退되지안을가 하는點이다.

×

一面으로 쌀을 사먹는便 即消費者의 立場으로서 본다면 政府에 向하야 될수잇는대로 싼값으로 賣却하여 달라는 要求가 나오게될것을 豫想할수가잇다 即 지금과 가티 米價變動은 그大部分이 自然的需給에 左右되는 이때에 잇서는 米價高에 對하야 消費者가 威嚇을 밧드래도 忍耐할수밧게업고 오직 政府의 그政策을 要望할수 밧게업지만 만약 專賣制로될 政府가 잡게되는만큼 實現의 公定價格을 一般米消費者의 購買力限度를 안너머스도록 하라는 要求를 政府에 向하야 直接할수가 잇게될것이다 이처럼 米專賣에잇서 그賣上價格을 中心으로 한 生産者와 消費者의 利害가 相反되기쉬운 性質의것이다 그러나 政府로서는 米生産者로부터 그生産費以下의 低價로 買上할수업고 또는 消費者에게 그以上의 價格으로 팔수업는 社會政策的目標에만 만약 그調和가 되지안는다면 米價安定問題에 못지안흔 紛糾가 생길는지 모른다 이에 對한 財政、經濟와 가튼 나라의 實際事情을 [illegible]

(一) 米價가 [illegible] 아니라 그生産費以上의 [illegible] (二) 먼저米生産費를標準으로한 買上價格이 決定되고 [illegible] (三)그러나 米價의 安定으로 地主로서는 土地資本利子가 公然히 保護케되는 有利한點도 不無하다

(나) 專賣制에 잇서서는 [illegible] 政府의公定價格에 依하게될것임으로 [illegible] 以上과 가티 米專賣制는 政府가 斷行하려고만하면 可能性이 업는바가 아니지만 實際에잇서 買上方法 賣却方法、配給方法等 그運用上 만 [illegible]

―(續)―

京城繭自由市場 畢竟閉鎖를決定

大邱도自然追隨閉鎖될運命

繭共販制强化方針

總督府에서는 繭의 共同販賣强化와 製絲工場의 原料繭不足緩和策으로서 自由市場閉鎖를 企圖하는 一面 共販市價의 統制民業繁殖의 相異한 見地로 大市場인 京城 大邱의 兩市場에서는 自由賣買를 認하얏섯는데 最近 製絲原料의 不足이 去益濃厚하야 全朝鮮各工場共히 操短을 行하고잇는 實情에 鑑하야 製絲業者의 要望을 容認하야 京畿道의 斷行과 相俟하야 春繭의 出廻를 압두고 突然京城自由市場의 廢止를 決定하고 此旨를 各業者에게 通告를發하얏다한다 大邱市場도 同樣의運命에 빠질것으로보인다 目下兩市場의 繭出廻는 春繭만 各二萬貫에 達하고 其中七割은 國用絲(地遺絲)로 三割이 輸出絲로 使用되고잇다 京畿道에서는 此等取扱業者의 旣得權擁護의 意味로 道內의屑繭(約二萬貫)의 取扱을 認케되엇는데 業者今後의 動向은 注目된다 한다

絲는 道의 所謂問題로 業者의 賣買는 모르나 京畿道가 行하면 當然大邱도 自由市場이 廢止될 運命일것이다

蠶絲業組合總會 十日緊急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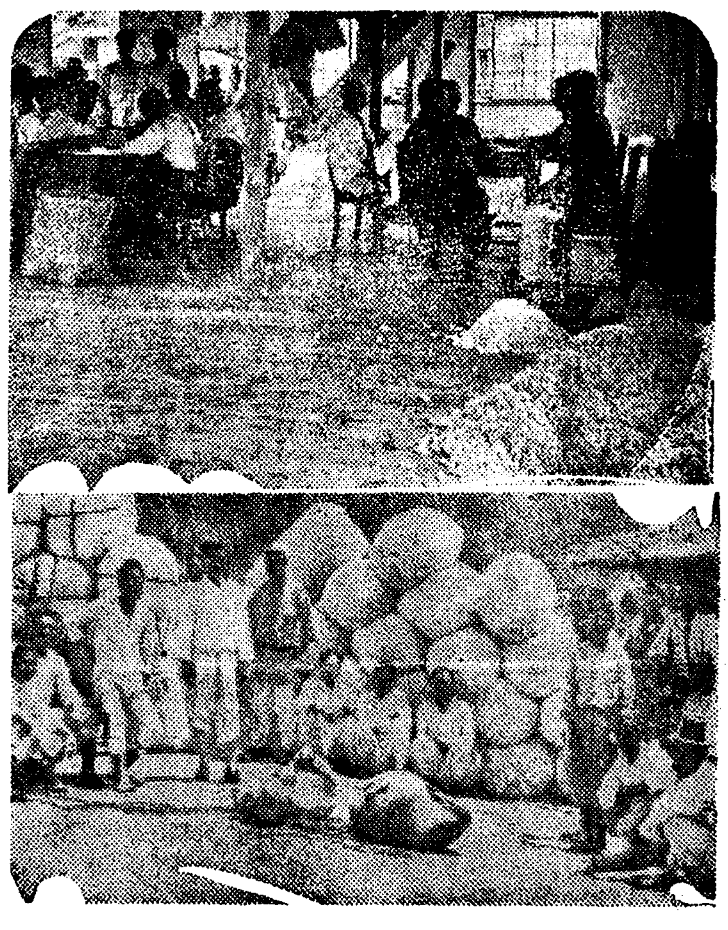
京城蠶絲業組合에서는 京城의繭市場閉鎖對策을 協議키爲하야 十日 午後三時부터 蠶業會館에서 臨時總會를 열기로되엇다고

蠶絲會役員改選

朝鮮蠶絲會에서는 이번 다음과가티 役員의改選을行하엿다고 ▲會長有賀光豊、副會長李恒九 田中明 ▲理事小口肇 小賀野淸藏、河原田甫、小倉臣俊雄、伊藤愼雄、武井孝治郞 ▲監事中川豐 矢澤茂登一 成元慶 藤崎進

指定仲買商數

▲京城十五 ▲大邱十七 ▲計三十二



(上)鐵瓮城가티 싸어노흔 繭共販光景 (下)繭市場으로 運搬되는 繭積出光景

製系主、養蠶從

繭自由市場閉鎖의結果로 十一日道令을公布

京城의繭自由市場廢止는 京畿道에서 繭의共販統制强化策下에 九年 十年으로 累年取締를 强化하야왓는데 更히今年에 入한後는 原料繭不足과 共販을强化키爲하야 自由市場을 閉鎖키로 方針을 決定하고 去六日京畿道에서 製絲協會、地場絲業者와繭賣買業者의參集을求하야 協議한結果 本春繭出廻期前에 廢止키로 決定하고 十一日道令으로써 布公키로되엇다 現在京城自由市場의 繭賣買業者는 十五名인데 此等은 屑繭其他의 取引을行케하야 格別히 生業을 威脅하지 안키로되엇다 그러나 問題는 自由市場의 繭價를 支配하던 實績으로보아 이 廢止는 製絲主、養蠶從이 되고 繭共販에對하야 恒常牽制材料로 되던만큼 養蠶業에의 波及이重大視되다한다

이取扱繭量은 十年度의實績으로보아 京城三萬五千貫大邱는 六萬貫에 達하야 繭의共販統制上 從前부터 問題되는것으로 撤廢에는 總督府로서는 統制上必要하다고 認하면서 事實問題로서의 困難이잇서 現在에及하얏던것이다 京畿道에서 率先하야 實施케되는것은 一兩日前消息를바덧다 統制强化上조흔일이다 認可와取 [illegible]

仲買人失業對策 ◇…屑系의取扱으로

閉鎖의 運命에 빠진京城의繭自由市場은 一年에 春繭만으로一萬貫(約六七萬圓)의 取引이 잇고 此等의 約七十%는 國用絲 三十%는輸出用에 供하는데 市場의 閉鎖에伴하야 問題되는 것은 繭仲買人約十名의 失業인데 그對策으로는 京畿道의 屑繭一萬貫을 取扱케할 方針이라 한다

統制强化 農林局當局者談

繭의 自由市場 廢止問題에 就하야 農林局蠶業係에서는 如左히말한다 現在大邱、京城의 兩地에서自由市場을 認하고 京城十五、大邱一七의 指定賣買業者가 잇서 이取扱繭量은 十年度의實績으로보아 [illegible]

最高公定價計算의 各地淸算米高價

═東京三十五圓四十二錢 ═大阪三十五圓十二錢 ═仁川三十二圓六十五錢

最高公定米價와 各地標準米와의 最高公定米價는 茨城縣二等米를 計算基準으로하야 三三圓二十二錢으로 定하엿는데 大阪及東京市場의 淸算市勢와의 計算은 다음과갓다

×

▲大阪 堂島市場의受渡米는 攝津旭 一等米를標準米로 定하엿슴으로 다음과가티 八月限은三十五圓十二錢에 該當하게된다

	攝津標準米와의格差	旭種格上	月別遞下格	計
四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即八月限은 最高公定價 三十三圓二十二錢에 上記一圓九十錢을加算하야 三十五圓十二錢이되며 九月限은 三十五圓十二錢이된다

▲備考 (一) 格差上五十錢은 攝津三等米가 茨城縣二等米에 比하야 五十錢格上 (二) 旭種格上六十錢은 堂島定期受渡米를 攝津三等米로서가장 好品인 旭種으로 定하기때문에 普通格差五十錢外에 또格上六十錢을 加算하게 됨으로 即 攝津三等旭種은 茨城縣二等米에 比하야 一圓十錢이 놉다 (三) 月別遞下格은 四月로부터 九月까지 漸次 時日이 경과수록 米質이 變하여감으로 月別遞下格을定한것인데 가령 渡米하는이가 同一한 標準米로 受方에게 渡한다고할지라도 變質의 關係로 旣定한 遞下價를 元價에서 減하게되는것이다

×

▲東京 東京市場의標準米는 埼玉縣越谷組合一等米로 定하엿는데 茨城縣二等米에 比하야 一圓六十錢 格上임으로 此에 月別遞下格六十錢(八月限目標)을 加하면 二圓二十錢이 놉게 그럼으로 東京淸算市勢로는 三十五圓四十二錢이 된다 (月別遞下格은 大阪과 同一)

×

▲仁川 仁川期米의標準米는 丸仁三等인데 가령 大阪八月限이三十五圓十二錢이라고하면 格差 一圓三十錢과 仁川에서 大阪倉入까지의 約一圓十七錢合計 二圓四十七錢임으로 三十五圓十二錢에서 二圓四十七錢을 控除한 三十二圓六十五錢을 最高公定價格으로 볼수잇다 그러나 仁川은 一定한採算이업슴으로 左와가튼數字를 目標로할수밧게업다 即 格差一圓三十錢 運賃費八十七錢 諸掛費三十錢 合計二圓四十七錢 【本社仁川支局調査】

朝鮮內紡績增設로 綿布廉賣戰展開

旣存會社는困境?

東紡、鐘紡、日紡의뒤를 이어여 紡績資本의工場이 進出되고 東紡仁川、鐘紡光州의操業은 朝鮮內下級綿布生産의 自給時代를 나타내는데 그結果 朝鮮內에는 綿布의深刻한販賣戰을展開하야 旣存의朝紡과京紡의 商圈은漸次壓迫되야 그趨勢가 重大視 되다 即 從來朝鮮內의 綿布市勢는移入稅乃至運賃關係로 日本內地市勢에 比하야 一割乃至一割三分의高價로 朝紡과京紡의 採算點이 되든바 東方 鐘紡의 朝鮮內操業結果는 同社等의 低價販賣가되고 또 日紡의 製品廉賣도잇서 最近에는 阪神市勢以下로 되는데 朝鮮紡績과 京城紡績의 今後가 注目을 끄는터이라고한다。

春繭出廻遲延

春繭은 例年全北의 早場地方으로부터 六月六、七日頃出廻하는데 今年은 氣候가느진 關係上 一週間餘出廻遲延十二、三日頃으로될模樣이라한다、繭價는 目下絲價로보아 貫當上物三圓四十錢 普通物二圓으로 買賣되리라한다

濱松繭市場

【濱松電話同盟】▲出廻七十三貫七十匁▲高價 五圓三十錢▲低價 三圓三十錢 ▲買瞞 四圓八十三錢七厘 ▲掛目 三十五掛

上旬對外貿易 入超千三百廿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에依하면 六月上旬對外貿易槪算의調査는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六月上旬	前年同期
輸出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入超	[illegible]	[illegible]

米日爲替反騰

【京城九日發同盟】九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買二十九弗三十九仙으로四仙高 買二十九弗三十五仙으로六仙高

取引停止(五月六日)

京城府長谷川町一一六番地 東洋農商株式會社長 金龍濟

經濟界消息

○朝信決算重役會=朝鮮信託會社에서는 十一日 午前十時부터 重役會를열고 上半期決算案에 對하야 協議할터인데 今期는 大體前期와 不變으로 六分配當据置가 될모양이다 定期總會는 今月廿七、八日頃으로될터인데 右總會에는 決算案外 咸興支店設置의件을 附議할터이라고

○北鮮製紙工場建設狀況=北鮮製紙工場의 建設工事는 氣候의順調로 顯著히 進捗하야 이미 四割의 進捗程度를 보임으로 十月의 完成은 確實케되엇다 그리고 藤原專務는 九日夜 淺野兩取締役은 十日夜發 吉州에 向할터이라고

○商店經營講演會=各地開催 商店經營研究所長淸水正己氏는 十日 午前七時 入京한바 十日午後八時부터 京城商議主催로 公會堂에서 商店經營에關한 講演會를 열터이다 그리고 朝鮮商議의斡旋으로 十一日仁川 十二日咸興 十四日淸津 十五日新義州에서 各各 商店經營의講演을 열터이라고

經濟寸鐵

京畿道에서는 京城繭自由市場 廢止決定 年來 要望해온 製絲家側은滔滔 願達成

○ 株式市場은 各目下에 群少業者는 하갓게 들어가는 세상이니 다시 무슨말이 잇슬가마는

○ 東大門外 白衣商들 밤버리가 끄러젓스니 딱한노릇

○

市場大觀

商況(十日)

株式 高價警戒 低弛

前場保合 依然高價警戒로 結局保合이오 鐘新만 百五十九圓五十錢에 續騰好勢이엇스나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十錢低인 百三十六圓丁 日産同價인 七十二圓九十錢 朝新二十六圓五十錢 日魯新三十五圓五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六十七圓丁 大新七十四圓十錢 日魯七十圓四十錢 日鐵百六圓七十錢이엇다

▲鐘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低迷 上旬貿易 大入超의嫌氣로 東京前引低를이어 後場低寄後 東新百三十五圓三十錢

軍事『인푸레』 一層進展期待

昨今株界를 圍繞한諸材料는 幾多의大問題가 山積하야 그것들이 모다 前途難測인터이니 對中問題、歐洲時局、庶政一新、增稅問題等等 歸趨를 輕斷할수업서서 昨年度豫算編成까지 漠然한不安에 抑壓되기쉬운實情下에 잇다 그러나로 維株의物色買까지도 積極性이 阻害되며 東新에保險繫가 常習的인狀態이나 明年度豫算에는 陸海軍費一層膨脹이 明白하고 國際政局의 危機北中時局의 緊張과 相俟하야 軍事인푸레 進展이 約束된 一方 軍需産業의 振興과 貿易進展等의 必要로産業의培養、積極化될 實情에잇다하면 庶政一新 産業統制도 無碍히 産業의實情을 無視하고 强行될것이 아니므로 軍需株中心市勢는 依然繼續될것이오 景氣는 一時的動搖가 잇다드래도 그基調는 不變하다는것이 一般에게 알리어저잇다 株界의根底는 徐徐히 恢復되는過程에 잇다고 打診된다는 말이잇다

株界根底恢復 景氣基調不變

漫性賣를驅逐 注目되는東新

目下의 狀態는 採合期를 압두고 夏市勢의 閑散戰에 移하는 氣構로서 一氣로 活氣한 展開를 보일것지안코 大體에잇서 繼株高로 追隨하야 投機株로 順序는 本格的騰進을 意味約束하는것이다 繼株高가 投機株의 下値를 阻止하고 機에 觸하야 路上을 促하고 漫性的賣를 驅逐하야가는것으로 보아도 조흘것이라는 强氣論이 잇다。

鐘新關門肉迫

紡投機株中鐘新은 또拂込을내세우고 賣買하는지 今前場은大阪百五十九圓六十錢、當地百五十九圓五十錢으로 百六十圓關門이 肉迫이엇는데 目前大爆發도 天井을지을것이지 百六十圓關門 突破로 [illegible] 注目되어 [illegible] 新은 冷靜히 짧이야말할것이라는것과 二、二六事件以來 東新은 百四十二、三圓이 잇스리 하나는 繼株高가 結局 東新에 [illegible] 高는 別無材料라한다 그리고 東京서 지금 二大觀測이 잇스니 [illegible]

▲東京情報=今朝東京市場 [illegible]

今日財界(十日)

◆米		◆株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朝新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東新	[illegible]
正米(仁川)一等	[illegible]	日産	[illegible]
一斤價 三等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市中金銀價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金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FAQ 現	[illegible]

期米 買氣再氣 昂高

前場少戾 昨後場阪地三十四圓〇三錢止와共히 三十一圓八十八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十錢인七丁反高를 據하고三十一圓九十八錢인 十丁反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三節十二錢으로 〇七錢까지 下押하엿다가 十四錢으로

大阪國債市高

▲甲五分利 [illegible] ▲第三五分 [illegible] ▲二八年四分 [illegible] ▲佛貨四分利 [illegible]

東京國債市高

甲五分利 一〇〇、五〇 / 一回四分利 一〇〇、五〇 / 二回四分利 一〇〇、五〇 / 佛貨四分利 一九八、八五

實物前場取引

▲大同産業 [illegible] ▲東滿 [illegible] ▲金剛電鐵新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滿洲煙草 [illegible] ▲朝日鑛業 [illegible] ▲滿洲세멘 [illegible]

正米依然頑强 旱氣더욱刺戟

昨今仁川의 玄米는 三十一圓二十錢으로 漸新高價를 演出하고도 오히려 餘勢는 又復高價를 示할듯한 形勢를 보이고잇다 實로正米는 挽近天候가 旱氣를 繼續하야 植付難의 悲歎을 부르게되며 在米의事情으로도 結局 需給의 窮屈을 免치못하게되는 關係로 農家는 又一層 賣惜方針을 鞏固히 하는모양이다 그럼으로 市勢는 利喰賣外에는 이러타할만한 弱材가 업고 四圓가 無非硬材인으로 畢竟은 又復新高價를 演出하지 안흘가한다 昨今의 各地市勢는 最高公定價格의 接近과共히 買警戒하는觀이 업지아니하나 그러나 目上의天候가 約一週日만 旱魃을 繼續하는때는 全朝鮮的으로 民心動搖되어 賣米로부터 高價를 演出하야 日本內地米界에까지 그影響이 波及될모양인즉 當分 賣買成은 警戒치안흘수업다고云云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illegible]		[illegible]
限	[illegible]		[illegible]

利喰賣로伸惱 公定價接近으로

本年의米界事情으로 보아서는 當期市勢四十圓도 無理하지안할수업는 그러나 目下 當限先限 三十四圓二十七錢의 高價는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한 市勢임으로 買方으로서는 警戒를 하기는 結局하고 도리어 利喰하야 賣占을 急히하며 賣方은 此邊의高價를 唯一한 賣場所로하야 防戰하고 動亂反落의 氣勢를보이고 잇다 果然北邊에까지 低落을 하게될지는 모르나 大體米界의 情勢를 綜合하여보면 二年續의 凶作後인만큼 不遠한時日에 米不足의說이 濃厚하야 一新規發市勢가업지안흘것갓고 又는 上의天候가 本年稻作에도 常時打擊을 興하게되는모든 點으로 보아서는 軟派도 아프로의 市勢는 當分 此邊에서 保勢를支續하는 수박게업을모양이다

後場二圓臺 後場은 三千一圓九十九錢에 [illegible] 九錢으로 九十四錢까지 少戻하엿다가 更히 九十九錢으로 [illegible] 고 [illegible]

堂島期米保合

【大阪電話同盟】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少軟 一般形勢 [illegible] 市況은 [illegible]

仁川少弱 實物不立으로 市場은 顯著한 買氣이업고 唱은 五錢小誤인 丸仁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圓九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〇八錢

釜山保合 産地高를 移하야 新規實物 全無인 反面移出側의 傍觀人氣로 顯著한 取引이업고 市況은 極히 閑散裡에 保合인 角二三等 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十三圓十四錢

大邱不變 實物拂底 인으로 取引까지 途切되나 定期頑强으로 市況은 底堅保合하야 角ア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群山少弱 日本內地로 부터 買付되나 實物拂底로 取引은잘 되지안코 期米의小浮動保合을移하야 氣配少弱인 菱ク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一圓三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木浦一息 旱魃念慮 等으로 産地는 賣價를 놉히는 一方 市中取引은 거의 停頓狀態에 陷하고 期米保合으로 市勢保合인 丸ホ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株式十日

◆朝取短期◆

	前寄	前引	高價	低價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東定代引日步◆ — [illegible]

期米十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各地正租市勢(單位錢)◆ — [illegible]

金融十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純金價◆ ◆京城市中金銀價◆ — [illegible]

米穀十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 [illegible]

商品十日

◆京城綿系布市勢◆ ◆京城絹布◆ ◆綿油沖價◆ ◆綿粕沖價◆ ◆자카豆期變◆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東京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 [illegible]

米 株 仁川 康益商店 金益證券株式會社 光

金石 福 土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長本四八五六